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준비—

대회조직위원회



자원봉사요원과 함께 (중앙 김충재)

제9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는 대회운영요원을 확정하고 지난 9월 2일 경기장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전 운영요원의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9월 9일 14 시에는 운영요원 발대식을 갖고 대회준비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였다.

노우중 대회업무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강원식 사무총장의 경과보고가 있은후 운영요원을 대표하여 황춘성 운영국장,

자원봉사요원을 대표하여 황선희(유대재학생) 양이 김운용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김운용 대회조직위원장의 격려사, 다과회 등을 가지며 조출한 발대식 행사를 마치고, 각부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회 유치에서부터 발대식까지의 경과와 조직기구표 및 각기 맡은 운영요원의 직무를 개간지에 실어 이번 세계대회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I) 경 과

1. 유치 경과

87년 10월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 태권도 연맹 정기총회에서 제9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개최지 선정결과, 중주국인 대한민국의 서울이 필리핀 마닐라를 38표 대 14표의 압도적 표차로 결정되었다.

2. 개최 승인

88년 11월 세계 선수권대회 국내개최 승인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여 금년 5월 23일 승인받았다.

3. 조직의 구성

금년 4월에 대한 태권도 협회장 김운용 IOC 집행위원을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한 1월 3국 14개부의 세계 선수권대회 조직 위원회가 출범했다.

4. 운영요원 선발

조직 위원회의 운영요원은 대한 태권도협회의 기술 심의회의 임원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운영요원 참여 경험이 있는 태권도인 전원을 선발하여 보임했으며, 특히 태권도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희대학교와 유도대학의 대학생 자원봉사 요원이 대거 참여했다.

5. 교육 훈련

8월에는 14개 부서장의 운영요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실시하고, 총 9차에 걸친 부서별 잠실 체육관 현장작업 교육이 있었다.

지난 9월 2일에는 전 운영요원 272명의 소집 교육을 실시하여 240명이 참가, 88.2%의 높은 출석율을 시현했다.



6. 현재까지의 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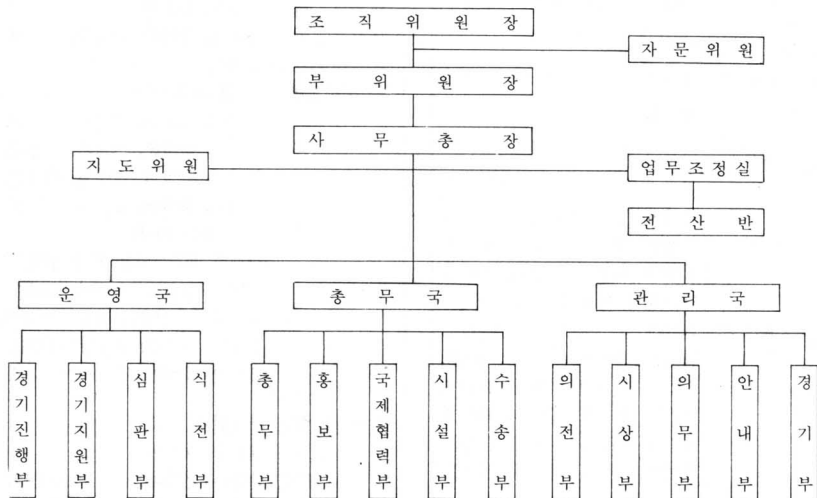
운영요원 구성은 총 272명 중 자체요원 112명으로 32%, 자원봉사자 160명으로 약 58%를 점하고 있다.

■ 예산규모 : 총 3억 8천만원,

■ 9월 7일 현재 엔트리 접수는 남자 36개국 347명, 여자 23개국 139명 합계 37개국 486명에 달하여 예상 목표대비 약 60% 수준이며, 예상 참가규모는 남자 선수권대회 65개국 620명, 여자 선수권대회 40개국 240명으로 총 70개국 860명이 이번 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서 사상 최대 규모로 예측된다.

■ 조직위의 그동안 준비 사항을 요약하면, 먼저 운영요원의 선발, 배치가 완료되어 인력동원 체계가 확립되었고 운영요원 교육 매뉴얼과 홍보 포스터 및 스티카를 제작, 배포했으며, 경기시설 및 장비 동원에 착수했으며 총리실, 체육부, 대한체육회,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기원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II) 조직표



조직위원회 운영요원 명단

조직위원장: 김운용

자문위원: 엄운규, 허남각, 박승복, 류상렬,
김신정, 황경로, 이상구, 우종립
김현우, 이우석, 이금홍, 송덕영,
조동원, 이방원, 이유생, 임정태,
이계광, 인창근, 최용수, 김차희,
한재수, 김주훈, 한용석, 황광철,
김정태, 전종윤, 이종승, 육종진,
임형연, 김경하, 이순달, 정릉사,
이교윤, 이용우, 김인석, 이영섭,
이규석.

부위원장: 홍종수, 김준철, 김동석, 김순배.

사무총장: 강원식

지도위원: 권경옥, 박해만, 김상철, 정관섭,
박익, 김차진, 김철만, 한상윤,
한길진, 박창락, 박기원, 고봉준,
정익진, 한문복, 문창균, 김정록,
윤웅일, 유기준, 진춘배, 정찬훈,
지동원, 노희덕, 이근우, 김영근,
성계준, 윤판석, 이진수, 안종용,
박명철, 정만순, 양준목, 장한철,
박창용, 예조해, 김억곤, 강용기,
정찬모, 김인수, 주상일, 김기선,
전호식, 이장원, 이창목, 김봉식,
김호채, 박명수, 강정구, 안영택,

태권도뉴스

박부철, 고국환, 문창남, 김중영,
안해욱, 이규형, 백운대, 임홍수.

업무조정실장: 노우중

운영국장: 황춘성

경기진행부장: 김봉기

차 장: 김정대, 최준배
위 원: 박형원, 양정승, 최영길, 오수곤,
진정환, 황성수, 유호경, 한기현,
김영일, 최주수, 이영근, 박필순,
남궁윤석, 박정욱.

자원봉사요원: 스티븐 카프너, 보비 클레이튼,
박정원, 정지영, 서경애, 이다화,
김인희, 한재선, 박상미, 왕성애,
정연주, 최진희, 신혜선, 최미진,
남진화, 박경화, 김은영, 김명렬,
강선희, 이승신, 이정희, 김형순.

경기지원부장: 김영작

차 장: 맹만호, 조호철
위 원: 정연주, 유석찬, 김현수, 이한현,
민준원, 이정위

자원봉사요원: 임성연

심판부장: 박현설

차 장: 김용길, 김기용
위 원: 국제심판

자원봉사요원: 김화룡

식전부장: 박창덕

차 장: 배성실, 신영익
위 원: 배석출, 박수건, 김갑식, 권혁중,
이상연, 장창영

자원봉사요원: 주신규, 최덕상

총무국장: 임춘길

총무부장: 이 봉

차 장: 조성봉, 유호윤
위 원: 양인옥, 강미숙, 김현숙, 임중희,
문창현.

자원봉사요원: (차량 지원 15명)

윤선기, 최완길, 남정진, 노승재,
김충연, 정철훈, 신석환, 박홍래,
정상기, 엄영섭, 신성환, 서병길,
김원기, 장세백, 송우길.

(언어지원 15명)

스티븐 위틀, 고용재, 송형석,
이명신, 김현경, 윤선미, 장세순,
최승규, 유일훈, 김용범외 3명,
김정록, 배은영, 현윤향, 백성업,
조한찬, 나광일, 김남균, 박기범.

홍보부장: 한규인

차 장: 양진방, 정윤식,
위 원: 강성철, 전만옥, 안용규, 노순영.

자원봉사요원: 김복녀, 전정우, 론 드주엔카

국제협력부장: 이승국

차 장: 김강인, 오함숙
위 원: 강세형, 남상덕, 송승복, 이문희,
유상철, 정장열.

자원봉사요원: 문원재

시설부장: 이규정

차 장: 양영모, 한상진
위 원: 송기화, 신병현, 정영근.

자원봉사요원: 이우일

수송부장: 이택명

차 장: 박용화, 김영철
위 원: 신동우, 공영선, 김영운, 안정희
자원봉사요원: 진장환, 경희대 태권도 학과 3명

관리국장: 전재규

태권도뉴스

의 전 부 장 : 김정지

차 장 : 유병호, 정락희
 위 원 : 이은송, 김세혁, 이백운, 황영갑,
 고영철, 유수철, 최유신, 유세중,
 장명수, 이규섭, 김종명, 나봉순,
 자원봉사요원 : 김기묵, 허 영, 송혜정, 이 영,
 박지선, 노경미, 한상란, 권순만,
 남궁명림.

의 무 부 장 : 김용서

차 장 : 동원 병원 의사
 위 원 : 동원 병원 간호원
 자원봉사요원 : 박영수, 손지휘

시 상 부 장 : 김대연

차 장 : 허지희, 이종찬
 위 원 : 강석환, 신천수, 김석련
 자원봉사요원 : 김정수, 정진태, 박준석, 고영균,
 강석길, 인준영, 정영호, 송기문,
 황종호, 최재호, 이강희, 이경민,
 김상순,

안 내 부 장 : 장정남

차 장 : 서춘희, 최중숙
 위 원 : 김경주, 지영숙, 정효심, 안영순,
 신정열.
 자원봉사요원 : 조길자, 양일해, 홍석영, 석소정,
 황귀녀, 이애경.

경 비 부 장 : 송봉섭,

차 장 : 김정기, 장기승,
 위 원 : 심명구, 진호선, 김동업, 김현태,
 윤덕영, 박판호, 윤치성, 최재무,
 박경선, 임종범, 최석철, 최정호,
 김우섭, 장행욱, 이규중, 송희수,
 조한희, 임윤택, 최돈오, 김현성,
 박종률, 양주호, 김광현, 김재봉,
 신윤암, 이성용, 박광일, 박창식,

최영태, 윤원근, 심재완, 라갑성,
 김영현, 김진도, 정천수, 권영훈,
 유백만, 김경일, 지병윤, 김종오,
 박노규, 최주열, 정태경, 이종근,
 윤용근, 장길태.

가행사일정표

일	자	요일	시	간	행	사	비	고
10. 5	-	7	09:00	-18:00	선수단 등록			
10. 6		금	15:00	-16:00	세계태권도 연맹 합 동 기술회의			
10. 7		토	10:00	-11:00	세계 태권도 연맹 입행 위원회			
			15:00	-17:00	세계 태권도 연맹 총회			
10. 8		일	09:00	-10:00	국제심판회의			
			10:00	-18:00	제4회 국제심판 보수 교육			
			14:00	-18:00	세계 태권도 연맹 의무위원회 회의			
			14:00	-16:00	대표자회의 및 추첨			세라톤 위커힐
			19:00	-21:00	환영연(세계태권도 연맹 총재 주최)			
10. 9		월	07:00	-08:00	계 체			
					남자부-핀, 플라이, 밴텀, 페더급			
			09:00	-13:30	경기 예선전			
					경기 예선전			
					남자부-핀, 플라이, 밴텀급			
			13:40	-13:55	식전공개행사 (고적대)			
			14:00	-15:00	개 회 식			
			15:00	-15:30	식후 공개행사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15:30	-18:20	경기 예선전			
					남자부-페더급			

태권도뉴스

일 자	요일	시 간	행 사	비 고
10. 10.	화	07:00-08:00	계 체 남자부-핀, 플라이, 밴텀,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급	
		09:00-12:30	경기예선전 남자부-라이트, 웰터급	
		12:30-13:00	태권도 시범	
		13:00-18:30	경기 예선전 남자부-미들, 헤비, 핀, 플라이, 밴텀급	

10. 11.	수	07:00-08:00	계 체 남자부-플라이,라이트급 여자부-플라이, 밴텀, 라이트급	
		09:00-12:30	경기 예선전 남자부-라이트급 여자부-플라이, 밴텀급	
		12:30-13:00	태권도 시범	
		13:00-18:40	경기 예선 및 준결승전 남자부-플라이,라이트급 여자부-플라이,라이트급	
		18:40-20:20	경기 결승전 및 시상 남자부-플라이,라이트급 여자부-플라이,라이트급	

10. 12.	목	07:00-08:00	계 체 남자부-핀, 미들급 여자부-핀, 페더, 미들급	
		09:00-12:30	경기 예선전 남자부-미들급 여자부-핀, 페더, 미들급	

10. 12.	목	12:30-13:00	태권도 시범	
		13:00-17:40	경기예선 및 준 결승전	

			남자부-핀, 미들급 여자부-핀, 미들급 117:40-19:02 경기 결승전 및 시상	
10. 13.	금	07:00-08:00	계 체 남자부-페더,헤비급 여자부-페더, 헤비급	
		09:00-12:30	경기 예선전 남자부-페더, 헤비급	
		12:30-13:00	태권도 시범	
		13:00-18:10	경기 예선 및 준 결승전 남자부-페더, 헤비급 여자부-페더, 헤비급	
10. 13.	금	18:10-19:50	경기 결승전 및 시상 남자부-페더, 헤비급 여자부-페더, 헤비급	
10. 14.	토	07:00-08:00	계 체 남자부-밴텀, 웰터급 여자부-밴텀, 웰터급	
		09:00-12:30	경기예선전 남자부-밴텀, 웰터급 여자부-밴텀, 웰터급	
		12:30-13:00	태권도 시범	
		13:00-15:00	경기 예선 및 준결승전 남자부-밴텀, 웰터급 여자부-밴텀, 웰터급	
		15:00-16:40	경기 결승전 및 시상 남자부-밴텀, 웰터급 여자부-밴텀, 웰터급	
		16:40-17:10	폐회식	
10. 15.	일	09:00-18:00	관 광	
10. 16.	월	09:00-20:00	출 국	

대표선수단 강화훈련 개시식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태권도 협회에서는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대표선수단 강화훈련 개시식을 9월 5일 12시 타워호텔에서 가졌다.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홍종수 부회장은 이번 대회가 96년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시금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선수들에게 선전을 당부하였고, 강원식 전무이사는 종주국 선수들로서 모든 행동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용석 선수단 단장(대전 태권도 협회장)은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기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단장이기 이전에 태권도의 선배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단장은 선수들의 훈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전 전지훈련을 계획하는 등,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단장은 선수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대회에 우리나라는 8체급에 남녀 1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남자 선수단은 선배들이 이워놓은 8연패의 위업을 9연패로 보답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는 한편, 여자 선

수단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신장, 체력의 열세를 종주국 여성 특유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스피드 보강, 적극적인 공격기술을 길러 88올림픽때의 준우승이란 불명예를 씻고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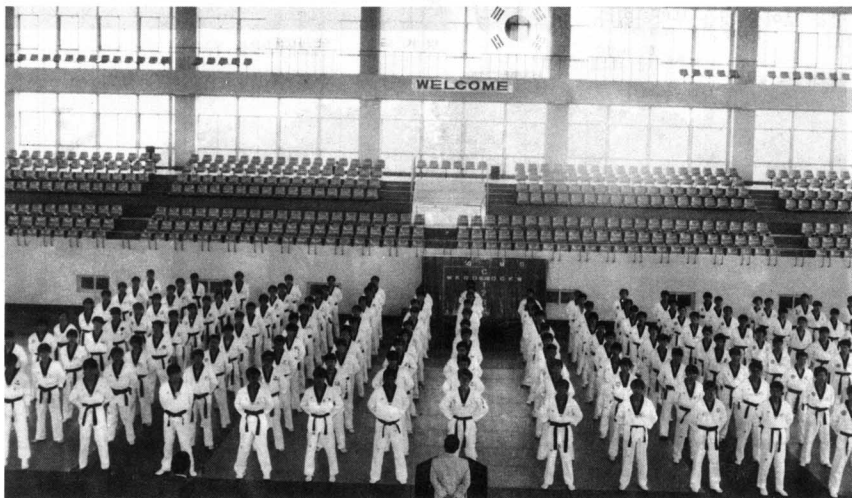
이제 선수들은 필승의 각오로 땀흘리는 일만 남아있다.

제62기 지도자 교육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에서 는 제62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172명의 교육생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태권도대학 설립추진

— 중·고연맹 이유생회장 —

제25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및 16회 중고연맹대회의 결승전이 1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MBC T.V에서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동안 태권도 보급에 있어 인색하게 굴었던 방송 매체가 이번 대회에서처럼 장시간 생방송을 한 것은 국내 태권도 대회사상 이례적인 예우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이처럼 방송계의 관심을 끌게된 데에는 매스컴의 과급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한 중고연맹 이유생회장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유생회장은 야구, 축구, 복싱 등 외국에서 도입된 경기종목들의 경기규칙은 흔히 알면서, 우리나라가 중주국이며 세계 방방곡곡에 보급된 우리의 스포츠 태권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T.V등에 방영해서 국민과 친숙한 운동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기 태권도의 위상이 국내에서도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계 방송에 힘쓴다고 항상 역설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 그 노력의 성과를 보게된 것인데, 결승전 시상식의 막간에 이회장을 만나 보았다.

허리를 다쳐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다는 이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권도 대학 설립에 관한 얘기부터 꺼냈다.

이미 신문(중앙일보 8월 16일자)에 보도 되었지만, 이회장은 유도학교에 7년전에 태권도학과가 생겼고 이어 경희대학교에도 6년전에 태권도학과가 생겼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학과이지 태권도 전문대학은 아니라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태권도대학 설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김운용 협회장과 협의, 그동안 재정적으로 연기되어온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이것은 태권도인의 소망으로서 꼭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아직 청사진을 밝힐 단계는 아니나, 계획없이 이번 대회사에서까지 언급하였것느냐하고 반문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태권도계에서 적극 지원해서 일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각오가 있다고 확고한 결의를 보여, 태권도 대학 설립을 바라는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수련생들을 수용할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어학과 지도면에서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런 문제는 태권도 대학 설립과 함께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회장의 발언은 그동안 흐지부지하게 끌어오던 대학 설립 추진에 일단 포문을 연 셈이 되었고, 나아가 태권도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전망했다.

지역편집위원 위촉

본협회에서는 시도협회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고자 지난 6월 15일 각시도협회에 편집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9명의 편집위원을 1차로 위촉한데 이어, 이번에 서울을 비롯한 9명 을 지역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도착순)



충청북도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박한규
금당국민학교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서인원
푸른체육관 관장
충남협회 심판위원장



경상북도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윤종욱
경북협회 총무이사
경북협회 전임코치



전라남도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김현수
조성중학교 교사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편집위원 : 황성길
국민학교연맹이사
고양종합고등학교교사



서울시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박노규
서울시협회 사무국장



편집위원 : 김종오
서울시협회 운영부장



인천시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이일구
희망체육관 관장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편집위원 : 김부영
중고연맹 홍보분과 위원장
고려중학교교사

※서울특별시협회는 지역의 특성(인구 조직 등)상 2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합니다.

'89년도 제 2 차 고단자 심사

국기원에서는 6월 24일 6, 7 단 고단자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고단자 심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심사위원만으로 진행해오던 종래의 심사방법이 지방 응시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는 각시도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시도 협회의 고단자들에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국기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서울과 지방간의 화합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채점 방식도 품새 2명, 겨누기 2명 등 4명의 심사위원제에서 5명의 심사위원을 한조로 한 다수제로 바꾸어, 그 중에서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중간의 3명 점수를 평균낸 것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채택하였다.

이번 제2차 고단자 심사 중, 7단에는 21명이 응시하여 황병우, 고한수, 김창성, 조항동, 유영권, 이천석, 이상정, 시진용, 강완립, 주영권 등 10명이 합격하였다.

그리고 6단에는 13명이 응시하여 유용석, 장정남, 유현목, 김기승, 홍중배, 권오인, 김노겸, 양재철 등 8명이 통과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고단자 심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별 심사위원 명단

1 조			2 조		
지 역	성 명	단 별	지 역	성 명	단 별
서 울	이용우	9	서 울	이교윤	9
"	박해만	"	"	김순배	"
"	송봉섭	8	"	강영복	8
부 산	조중덕	"	대 구	신동규	"
강 원	박병철	"	경 기	안종용	"
경 북	이조혜	"	충 북	정익진	"
전 남	김정록	"	경 남	박용용	"
인 천	한상운	7	광 주	김민철	7
대 전	신재홍	"	충 남	한문복	"
제 주	문무용	"	전 북	유병용	"

전국가대표 이계행, 최천 코치로 변신

—지도자 수업 시작—

이계행 국가대표선수가 지난 6월 1일 코치 발령을 받고 전남 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를 가르치고 있다.

조선대 체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 교육대학원 4학기 재학중인 이코치는 2회 월드컵 게임, 10회 아시안 게임, 8회 세계 대회, 그리고 '88서울 올림픽 등, 세계적인 중요한 대회를 모두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22명의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이코치는 "옛날 나를 가르치시던 코치선생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 선수가 코치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게



느껴진다"고 지도자로서의 고충을 말했다.

국가대표선수 해비급 5명중에 가장 화려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코치는 지난 5월에 실시된 한국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에서 무릎부상을 입어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제9회 세계 대회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었지만, 무릎부상이 나으면 다음 10회 대회에는 나갈 수 있도록 재기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선수로 뛰던 최천 선수도 89년 6월 19일자로 송림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발령받았다.

작년에 경희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최코치는 제5회 아시아 대회 편급 우승, 대통령기 대회 '84, '85, '86 편급 우승, '85년대표선발 2차 우승, '85 전국체전 경기대표 우승, 그리고 '85년 대학 연맹 편급 우승 등의 주요 전적을 가지고 있다.

남을 가르친다는 지도자의 역할이 선수 생활보다 훨씬 어렵다고 털어 놓은 최코치는,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선수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기량을 다각적으로 재정비해서, 현재 지도하고 있는 25명의 선수들을 훌륭한 선수로 키워나가겠다고 다부진 의욕을 펼쳐 보였다.

강릉농고 태권도부 창단



강릉 농고 태권도부가 89년 6월 28일 오후 2시 강릉 농고 강당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이미 1957년에 태권도 서클이 조직되어 60년도에는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등 활동이 있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29년만에 실로 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강릉 농고의 태권도부 창단은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의 강원 사대부고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에서, 선수층이 얇은

강원도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단사에서 한기운 교장은 국기이자 88 서울 올림픽의 시범경기 종목인 태권도는 중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운동으로, 팀 창단이 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하고 강원도내 중등부 태권도 수련생들의 계열 진학을 위한 의도적인 창단임을 강조하였다.

창단식에서는 강원도 협회에서 한교장에게 감사패와 경기용구 일체를 기증하였다.

팀 창단은 1학년 24명, 2학년 22명, 3학년 6명으로 교내의 유단자를 주축으로 출범한 데 이어, 90년도부터는 특기생을 받아들여 각종 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다.

태권도부의 홍용주(3학년, 2단) 부장은 인화단결로 팀의 사기를 높이고 강원도 협회장기, 도민체전 등에 우선 참여하면서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팀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여자 헤비급간판스타 장 윤 정 선수

—제우교역(株)취업—

82년에서 88년까지 국가대표 헤비급 선수로 활약했던 장윤정 선수가 8월 25일 제우교역(주) 아디다스의 특수 영업부에 입사하였다.

경북 체육고등학교와 명지

대 체육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중고연맹대회(9회, 10회, 각 1위), 여자국가대표 선발전('84, '85, '86, '87년 각 1위), 1회 여자 세계 태권도 대회(3위) 세계 태권도 대회(7회 3위), 아

시아 태권도 대회(7, 8회 각 1위) 등 19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88년 6월 3일에는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한 바 있다.

소년체육대회 개최식 공개행사에 태권도 시범

—미동 국민학교—

제 6 회 서울 소년체육대회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8월 22일 14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식이 끝난 뒤에는 태권도 시범을 비롯하여 리듬체조, 부채춤, 밴드퍼레이드 등 식후 공개행사가 약 30분동안 펼쳐졌다.

이 중에서 은천국민학교 무용단의 부채춤과 이규형 지도사범의 안무에 의한 미동 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의 약동이 가장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이번 소년 체육대회 국민학교부에 태권도가 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축하라도 하는 것처럼 태권도 시범은 관중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 미동국교 태권도부의 김기태 군(6학년)이 장애물 10명 넘어 2단 옆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다.

9개 교육구청 대항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28개 종목에 국민학교부 1428명, 중학부에 2558명 등 모두 3986명의 선수

가 출전, 각 구청의 명예를 걸고 열전 5일의 경기를 마쳤다.

태권도가 국교부 65명, 중학부 94명 등 159명이 출전하였다.

성인시범단에 여성단원 입단

—박 선 영—

제16회 중·고연맹대회 시상식 막간에 성인시범단의 시범이 있었다. 성인시범단에서는 처음으로 여자단원인 박선영선

수가 참가했다. 박선영선수는 호주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1위, '88 올림픽 3위, 미국과 대만 친선대회 참가한 전

적을 가지고 있는 박선수는 청산 여고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경기참가기

제2회여자세계선수권대회

여자타입코치 이철주 · 트레이너 임신자

I. 대회개요

여자 태권도는 제7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는 시범 경기로 치루어졌는데 87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대회때부터 정식으로 제1회 세계대회가 개최되면서 명실공히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인정됨과 동시에 세계 여성태권도인의 관심과 기대속에 태권도 발전의 기틀을 이룩했다.

또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시범종목으로 남녀가 함께 채택되는 등 종래와는 다른 차원에서 태권도의 지위가 격상되어 국내 및 국외의 태권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태권도 경기에 관심이 고양되었다. 이번 세계대회는 올림픽대회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높았고 앞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기반의 조성 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의 중요성이 컸다.

한편 올림픽경기 때 보여준 외국의 여자 태권도인의 실력이 중추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국내에 팽배해 있어 중추국으로서의 위상을 가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대회이기도 했다.

따라서 여자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자는 목표를 두고 선수들의 선전과 분발을 촉구하였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인 만큼 국내 태권도인들의 관심도 컸지만 우승국 후보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대만, 스페인에서도 많은 기대와 노력을 기울였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한

경쟁 속에 경기가 치루어졌고 대회규모면에서도 34개국에서 136명의 선수가 참가해 성황리에 경기를 치루었다.

II. 경기내용

〈10월 11일〉

▲판공

경기 첫날부터 대만의 Chin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있어 우리 선수단은 긴장한 가운데 시합에 임하였다.

예선전에서 김지향 선수는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올라 이집트 선수를 맞이하여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어 1회전 우세, 2회전 돌려차기로 1득점, 3회전 들어찍기로 1득점을 얻어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예측한대로 대만의 Chin 선수도 터어키 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안착했다.

준결승전은 김지향선수와 Chin 선수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Chin 선수는 역시 올림픽 우승자답게 빠른 몸놀림이 인상적이었고 1회전에 김선수가 빠른 발찍기로 1득점을 얻자 대만선수도 원발 밀어찍기로 1점을 따내 2회전에서는 대만선수의 앞차고 뒷차기의 연결동작에 1점을 내주고 3회전에 접어들어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받아차기와 런너찍기로 서로 1득점을 추가, 3대 2로 패하고 말았다.

한국선수를 이긴 Chin 선수는 결승에서 멕시코 선수를 맞이해서 다양한 연결동작과 기술로 상대를 제압, 여자부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페더급

1회 세계대회 우승자였던 김소영 선수는 여러 차례의 국제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한 경기운영을 한 가운데 예선에서 호주 선수를 만나 상대전수의 동작미숙과 헛점을 이용하여 받아돌려차기로 득점을 얻어 준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준결승전에서는 터어키 선수를 맞이하여 앞발을 자주드는 상대의 헛점을 노려 받아차기와 모션을 이용한 발차기로 득점을 선취하여 준결승전에 올라가 올림픽 준우승자인 멕시코 선수의 거센 공격을 받으며 뒤로 물리는 듯 했으나 김선수 특기인 받아차기로 득점을 얻어 4대 0이라는 큰 점수차로 누르고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미국의 Kim선수와 겨루었다.

시종 저돌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위협했으나 받아차기와 사이드 스텝을 이용하면서 확실하게 득점을 얻어 4대 1이란 점수로 판정승, 첫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10월 12일>

▲플라이급

원전진 선수는 예선에서 멕시코 선수를 맞이하여 빠른 공격으로 상대의 공격 뒷차기를 몸통 받아차기로 선취점을 올린 뒤 2, 3회전 상대의 돌려차기 공격을 들어찍기와 오른발 앞발 밀어차기로 1득점, 가볍게 예선을 통과한 뒤 준준에서 이탈리아 선수를 맞아 적절한 받아 돌려차기와 밀어차기 들어찍기를 사용하여 3대 1로 판정승,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호주 선수와 결승 진출을 놓고 상대의 단순한 기술을 스텝과 모션을 사용하며 차분한 동작으로 득점을 얻어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1회 세계대회 우승자인 대만의 Pai선수와 마지막 경기를 놓고 숨가쁜 결전이 펼쳐졌다.

대만 선수의 노련한 경기운영과 빠른 동작의 연결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원선수 역시 다양

한 기술과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우승이 기대되는 선수였는데, 1회전에 선제 공격에 의한 원발 주고 오른발 몸통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되어 1득점을 선취하고 2회전에서는 원전수가 다소 긴장이 풀리는 듯 공격해 오는 상대를 앞발로 밀어 득점을 얻었다.

3회전은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Pai선수에 밀려 1점을 내주어 2대 1이란 점수로 힘들고 어려운 판문을 지나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웰터급

김지숙 선수는 예선에서 스페인 선수를 맞이하여 차분한 경기운영으로 상대의 헛점을 유도하여 받아 돌려차기와 뒷차기 등으로 득점을 얻어 3대 1이란 점수로 예선을 통과하고 준준결승전에는 신장이 좋은 대만선수를 만나 긴다리를 이용해서 공격해 오는 상대를 받아차기로 1득점을 얻어 시종 우세한 경기로 대만 선수를 이겼으나 경기 중 무리한 발차리로 오른다리의 내측 인대가 늘어나는 불운을 안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는 네덜란드 선수와 경기를 가졌다.

1회전 우세를 얻고 2회전에 김선수의 선제 공격으로 내력찍기와 뒷차기를 연결시켜 득점을 얻으려 했으나 동시에 상대의 돌려차기가 득점으로 연결되어 상대 선수의 득점만이 인정되는 가운데 1점을 내주었다.

3회전에서는 1점을 만회하려고 다양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득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석패를 하고 말았다.

한국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네덜란드 선수는 미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패로 2위로 머무르고 미국선수에게 우승이 돌아갔다.

<10월 13일>

▲라이트급

예선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를 맞은 이은영 선수는 많은 경험을 토대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차기와 커트발 연결로 득



금5, 동2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여자대표팀

점을 얻어 예선을 통과한 뒤 준결승전에서는 미국 선수의 다양한 공격을 스텝과 모션으로 저지한 뒤 찍기와 받아차기로 선취점을 얻어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스페인 선수의 거센 도전을 받아 상대의 힘을 이용한 공격으로 힘겨웠으나 노련한 경기운영과 커트발 연결로 1회전에 우세를 거둔 뒤 2, 3회전에서 앞발 발볼여차기와 뒷차기로 2득점을 얻어 결승전에 진출했다.

라이트급 역시 우승을 기대하고 나온 대만의 Liu 선수가 결승에 안착했다.

Liu 선수도 뛰어난 신장과 기량이 눈에 띄었고 이 선수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다.

1회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장신에 의해 이 선수의 동작이 차단되는 듯 했으나 순간적인 얼굴 찍기가 적중해서 1득점을 얻고 2회전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앞받들어 옆차기로 떨어뜨린 뒤 연이은 몸통공격에 득점이 추가되어 2득점을 얻고, 경기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 3회전 역시 1득점을 얻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우승을 결정 지을 수 있었다.

▲헤비급

예선전에서 이집트 선수와 경기를 가진 정완숙 선수는 처음 국제대회에 출전해서인지 긴장을 하는 듯 경기를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준결승전에서는 터키 선수를 맞이하여

예선과는 다르게 차츰 안정을 찾아갔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으로 경기에 임해 돌려차기와 폼바꾸어 돌려차기로 득점을 얻어 3대 0 판정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대만 선수와 서로 적극적인 공방으로 정선수의 폼바꾸어 돌려차기가 적중, 선취점을 얻어 가볍게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미국의 장신인 Love가 올라오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Love 선수의 예선 탈락으로 캐나다의 Yvonne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다.

이 선수는 오른발 받아차기가 득점 발차기로 정선수의 선제공격에 의한 원발 공격에 주도권과 득점을 빼앗겨 우승의 정상을 정선수에게 넘겨 줌으로써 한국의 최약 체급인 헤비급에서 정완숙 선수는 영광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10월 14일〉

▲밴텀급

예선 2게임을 치뤄야 하는 정남숙 선수는 예선 1회전에 스페인 선수를 적극적인 공세로 상대를 몰아붙인 뒤 돌려차기와 찍기로 득점을 얻었고 예선 2차전에서도 일본 선수와 시종 우세한 경기로 앞발 들어찍기 발볼여찍기 등 많은 점수차를 얻고 예선을 통과했다.

준결승전에서는 멕시코 선수와 시소게임을 펼치면서 서로 상대 공격을 주고받는 활발한 경기를 진행시켰다.

1회전에서 찍기로 1득점, 2회전에서는 정선수가 과감하게 상대 공격으로 2점을 얻었으나

상대 선수도 적극적인 공세로 2점을 얻은 가운데 3회전에서는 서로 찍기로 1득점을 추가 4대 3이란 점수로 승리하여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지금까지 대만 선수들이 최고의 강자로 떠올라 한국 선수들과 팽팽한 대결을 벌여 왔듯이 밴텀급에 출전한 대만선수 역시 작년 올림픽 우승자인 Chen 선수였다.

정선수는 준결승전에 올라온 Chen 선수를 맞이하여 월등한 신장에 굴하지 않고 1회전에 선제 공격에 의한 들어찍기로 1득점을 얻고 상대의 날카로운 상단공격을 이용한 오른발 뒷차기가 성공하여 2득점을 얻은 뒤 3회전에서는 대만 선수의 맹공으로 1점을 잃었으나 2대 1이란 점수차로 판전승, 힘겹게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미국선수와 환관 승부를 남겨놓고 서로 비슷한 공격형태로 1회전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두 선수 모두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 상단 찍기로 득점을 얻는 등 불꽃튀는 경쟁으로 3회전까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으나 정선수의 난이도 높은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 발차기가 우세로 인정받아 힘겨운 사투 끝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미들급

김현희선수는 올림픽 경기 때 결승에서 만났던 네덜란드의 Jongh 선수와 예선을 치뤘다.

예선전부터 부담스런 경기라 신중하게 대비했으나 1회전에 상대의 턴 돌려차기를 원발로 저지하려다 길게 들어오는 상대 발에 실점을 하는 바람에 1점을 내주었다.

2, 3회전에서 실점을 만회하려고 많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득점을 얻지 못한 채 예선에서 탈락하는 가슴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김선수를 이긴 Jongh 선수는 미국선수와 선전을 했으나 아깝게 저서 미국선수가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우승자 후보로 캐나다에서 기대를 모았던 Marcicking 선수가 예상대로 결승에

올라 미국선수와 승부를 겨루어 서로가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미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우승: 한 국
준우승: 미 국
3위: 중화대북

입상자명단

체 급	순 위	이 름	국 명
핀	1	Yu Fang Chin	중화대북
	2	Monica Torres	멕시코
	3	김지향	한국
	3	Sita Kumari Rai	네팔
플라이	1	원선진	한국
	2	Yun Yao Pai	중화대북
	3	Anita Falieros	호주
	3	Mayumi Pejo	미국
밴 텀	1	정남숙	한국
	2	Diane Murray	미국
	3	Yi An Chen	중화대북
	3	Aysin Haktanir	터키
페 더	1	김소영	한국
	2	Kim Dotson	미국
	3	Patrical Mariscal	멕시코
	3	Raouel Palacios	스페인
라이트	1	이은영	한국
	2	Chao Ching Liu	중화대북
	3	Elena Benitez	스페인
	3	Seyda Serefoglu	터키
웰 터	1	Anita Silsby	미국
	2	Annemuke Buys	네덜란드
	3	Ayse Alkaya	스페인
	3	김지숙	한국
미 들	1	Lydia Zele	미국
	2	Marcie King	캐나다
	3	Antonia Vega	스페인
	3	Ju Ya Hsu	중화대북
헤 비	1	정완숙	한국
	2	Yvonne Franssen	캐나다
	3	Hsi Chun Yang	중화대북
	3	Yolanda Santana	스페인

III. 경기의 결과 및 평가

어떤 일이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가 주어진다는 평범한 진실 속에 이번 대회는
어느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선수단 전체와 주위
의 많은 관심이 바로 제2회 세계대회 우승이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한 고비 두 고비 우승의 고지를 향해서 힘들
게 올라가던 선수들의 모습과 그런 자랑스럼과
대견함을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던 태권도인들
의 박수 속에서 여자 태권도는 새롭게 안주하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더 종주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속에서 현
실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본
다.

또한 이번 대회는 좋은 결과 못지 않게 앞으
로 깊어지고 나갈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무거워
졌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선수단의 구성을 보면 이번 선수단은 그
어느때 보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에 자신감
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좋은 성적을 내는데 밑
거름이 될 수 있었고 주춧돌이던 잊점으로 사전
에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수집과 주위의 직, 간
접적인 조언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또한 선수
와 코칭스텝간의 인화단결 속에 선수단 임원진
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바로 우승으로 연결시
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했다.

그리고 경기면에서는 매 대회 때마다 향상되
는 각종 선수들의 기량은 대체적으로 과감한 연
결동작과 힘의 기술이 지배적이었고 한국 선수
들은 신장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받아
차기 위주의 반격형태로 득점을 얻는 기술에 치
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극적인 공
격 형태 보다는 적극적인 공격기술 개발이 시급
하다는 점에서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여자체권
도의 발전과 향상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제언
한다면 먼저 대표선발과정과 대표선수 훈련에

장기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여자 태
권도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전국체전 채택, 대
통령기 여자부 신설) 등이 구체화 될 때 보다
수준 높은 기량과 기술로 종주국의 위치 뿐 아
니라 세계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제2회 세계대회가 5체급 우승과 더불어
어 종합우승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선수들과 임원진들의 합심된 결
과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 같다. *

“중학교 3학년생 원선진 세계를 제패”

1974년 7월 4일 경기도 안양에서 출생, 만 15
세로 수원수성여중 3학년에 재학중인 원선진선
수가 플라이급 국가대표로 출전해 뛰어난 기량
으로 세계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금메달
을 따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중학 1학년때인 1987년도 여자개인선수권대
회에서 국가대표 이화진선수를 누르고 편급 우
승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여자
태권도선수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해 말 전국
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도 전국가대표선수 등 많
은 선배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여자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어
1988년도에도 여자개인선수권대회와 우수선수
선발대회 우승으로 2연패를 기록했다.

원선진선수는 스피드와 다양한 기술, 체력을
겸비, 뛰어난 태권도선수로 올해초 국가대표 선
발전에서는 예선전에서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
스트인 추나를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여
수중양여고의 박은미선수를 제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이번 세계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부
로 주목받아 왔다.

원선진선수는 또한 태권도선수로서 뿐만 아
니라 학교 성적면에서도 전교 1, 2등을 차지해
태권도선수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

각종회의

제9회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제9회 세계태권도연맹 총회가 10월 7일 웨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58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의 주요·안건으로는 1) 사업보고 및 재무보고 2) 규약개정 3) 경기규칙 개정 4) 임원선

거 5)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 선정 6) 1991년도 월드컵 개최국 선정 7) 신규회원가입승인 8) 국기원 단증 신청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김운용총재 재선

김운용회장이 10월 7일 웨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서 6대 총재로 재선되었다.

한편 새로 구성된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회 임원명단

- ▲회 장 : 김운용(한국)
- ▲부 회 장 : Mr. Josiah Henson(미국)
Mr. Abdel Karim Darwish(이집트)
이종우(한국)
Mr. Manuel Marco Salla(스페인)
임운규(한국)
- ▲사 무 총 장 : 이종우(한국)
- ▲재 무 이 사 : Mr. Nobuyoshi Takahashi(일본)
- ▲위 원 : Mr. Alexander R. Abadio(가나)
Mr. Kyong Won Ahn(미국)
Mr. Esen Beder(터키)
Mr. Johan Chin J. P.(말레이시아)
Mr. Jacques Duguet(프랑스)

- Mr. Majid M. Hussein(요르단)
- Mr. Walter Martinez Bello(볼리비아)
- Mr. Sun Jae Park(이탈리아)
- Mr. Kris Wiluan(인도네시아)
- Mr. Shu Shiau Yang(중화대북)
- Mr. C. P. Sergio Foneca Martin(멕시코)
- Mr. Hans U. Siegel(독일)
- Mr. Alaa G. Zaki(이집트)
- Mr. Nikola Pecko(유고슬라비아)
- Mr. Wiestow Dolinski(폴란드)

- ▲감 사 : Mr. Moo Yong Lee(미국)
Mr. Rene Bundeli(스위스)
- ▲자문위원 : Mr. G. G. Kariuki MP(케냐)
Mr. Lo Chang(중화대북)
Mr. Richard Palmer(영국)
이금홍(한국)
Mr. Sabino Hernandez Martinez(에쿠아도르)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3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개최국선정

차기 세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한 나라는 미국, 그리스, 브라질 등 3개국으로 총회에서는 차후 세계태권도연맹 집행회에서 개최신청국에 대해 사업계획안을 제출토록하여 이들 중 선정키로 의결하였다.

1991년도 월드컵 개최국 선정

1991년도 월드컵대회는 유고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규칙주요개정내용

▲제4조(선수) 자격 1) 출전국 국적소지자
2) 출전국협회가 추천한 자로 되어있던 것을 3)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단증 소
지자를 첨가하였다.

▲제11조(허용기술과 부위)가 첨가되어 공
격과 허용부위를 재정리하였다.

1. 허용기술

1) 손기술: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
분을 이용한 공격

2) 발기술: 복숭아뼈 이하의 발부위를 이용
한 공격

2. 허용부위

1) 몸통부위: 장골능을 기준으로한 횡단성
이상에서 견bones를 기준으로 한 횡단성 이하의 부
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 단
호구로 보호되지 않는 등부위는 공격을 할 수
없다.

2) 얼굴부위: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의
전면 얼굴부위로서 발기술의 공격만이 허용된
다.

▲제12조(득점)에서는 주먹 또는 발 공격을
가한직후 고의로 넘어지거나 상대선수를 잡는
행위를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공격자
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때도 득점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1. 득점부위

1) 몸통: 복부, 양 옆구리

2) 얼굴: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득점부위가 아
니더라도 정당한 기술로 몸통보호구 위를 강하
게 공격하여 상대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는 득점으로 간주한다.

3. 득점 1회는 +1점이다.

4. 득점은 전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1) 공격자가 가격한 후 고의로 넘어졌을
때

2) 공격자가 가격한 후 반칙행위를 범하였
을 때

3)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
을 때

▲제13조(채점과 표출)가 새로이 첨가 되었
다.

1.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점수
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2. 일반 호구 사용시 채점은 키보드나 채점표
에 의해 부심이 채점한다.

3. 전자호구 사용시 1) 몸통 부위의 채점은 전
자호구에 부착된 발신기에 의해 자동 채점
된다.

2) 얼굴부위의 채점은 키보드에 의해 부심
이 채점한다.

▲제14조(금지행위)

경고 1회(-0.5점)를 계산치 않으므로써 소
수점 이하 수치를 없앴다. 또, 경고와 감점의 기
준에 약간의 변경이 있다.

4. 경고 2회는 감점 1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산치 않는다.

6. 경고사항

3) 손, 팔로써 상대를 끼는 행위(첨가)

10) 고의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
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첨가)

12) 선수자신이 손을 들어 득, 감점을 시위
하는 행위(첨가)

(경계선 주위를 도는 행위는 경고사항에서
삭제)

7. 감점사항

3) 뒤통수 및 등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첨가)

7) 잡아넘기는 행위(경고사항에서 감점사항으로 변경)

▲제15조 우세의 판정

기존의 경기규칙에서는 주먹기술 및 발 기술에 의거, 얻은 득점이 동점일 경우 혹은 쌍방이 무득점일 경우, 우세의 기준에 따라 매회전 경기마다 적용해 실시하던 것을 전회전을 통해 판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득점우위

2. 위항이 아닌 동점의 경우 또는 무득점 경우에는 주심이 전회전을 통한 우세를 판정한다.

3.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제16조(경기결과 판정)

경기결과와 승자판정이 기준에 8개항목으로 구분하던 것을 1. 케이오승 2. 주심직권승(RSC) 3. 판정승 4. 기권승 5. 실격승 6. 반칙승으로 구분했다.

▲제19조(심판원의 임무)에서 1) 주심의 임무가 기준에 경기의 주도권 및 채점, 배심원의 요청에 의해 소견을 진술하던 것을 득점은 채점하지 않는 대신 경기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일 경우 우세기준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제20조(감독관)편이 신설되어 1. 자격을 1급 국제심판자격소지자 또는 20년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자로 하였고 2. 임무는 1) 당해 경기장 전반의 관리감독 2) 판정에 대한 확인 3) 심판의 고과표 작성 4) 소청심사의 진술권을 부여했다.(배심에 관련된 사항 삭제)

▲제22조(심판원 구성 및 배정)

1) 5심제(일반호구 사용시)—감독관 1명, 주심 1명, 부심 4명 2) 3심제(전자호구사용시)—감독관 1명,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하였다.

제24조(소청)에서는 소청을 위하여 각 코트별 비데오를 설치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경기규칙은 총회의결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0년 10월 부터 시행

하게 된다.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세계태권도연맹은 10월 7일 웨라톤워커히호텔에서 김운용총재를 비롯한 집행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토의안건은 1) 규약개정 2) 경기규칙개정 3) 파푸아뉴기니아, 케이만군도, 베트남, 통가, 시에라레온, 헝가리, 파나마 등 7개국회원국가입승인의결.

세계태권도연맹 합동기술회의

각국 기술대표 총65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6일 국기원 강의실에서 합동기술회의가 열려 총회에 상정할 경기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의 및 제안이 있었다.

제4회 국제심판 보수교육

국제심판보수교육이 10월 8일 165명의 국제심판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진행되었다.

보수교육은 국제심판의 마음가짐, 경기중 행동지침, 경기진행지침, 채점 및 감점요령, 경기규정해설 및 실기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연맹 의무분과위원회

국제 심포지움

10월 8일 웨라톤워커히호텔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조장원 의무분과위원장 등 21명의 의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분과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어 각국의 참가자들이 제출한 「태권도 경기에 있어 생리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자원봉사참가기

제2·3회 세계대회챔피언 허송

—개폐회식 운영요원으로 참가하여—



허 송

- ▲1950년 11월 8일생
- ▲체육훈장 기린장(1975)·백마장(1977)
- ▲보국포장(1984)·국무총리표창(1989) 수상
- ▲1975년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1위
- ▲1977년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1980년 국제군인(CISM)대회 국가대표 감독
- ▲현재 전주 육군본부 인사참모(중령)

세계 태권도 회원국가의 우호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와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양과 국위선양 도모 그리고 공산권 및 비동맹권 회원국의 대거 참여 유도과 체육문화 교류확대 추진 나아가서 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협조체제 확립, 태권도 종주국의 위치 부각으로 한국 국위 선양에 역점을 두고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종주국에서 이번 세계대회를 개최하므로써 태권도인의 위상을 널리 과시하고 참여분위기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역대 챔피언을 초청하였다. 관람석에 좌석을 마련해 대우를 함은 물론 경기 입장식, 시상식, 폐회식시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기와 우승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일 그리고 각종 대회기를 강하하는 일에 역대 세계대회 챔피언들을 참가하게 대회의 상징성을 높였다.

현재 외국에 나간 선수를 제외하고 국내에는 여자를 포함해 약 40여명의 챔피언들이 있는데 나는 행사의 계획된 시간과 개회식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폐회 참가하였다.

태권도 협회에서 전화를 받고 모인 역대챔피언은 최정도, 장승화, 강의성, 황용수, 이계승, 하석광, 김종기, 양기모, 정국현, 한재규, 장이숙(여자)씨 등 12명^①이었는데 이들은 각자 가용된 시간과 직장을 고려하여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였다. 우리는 경기 개회식 때 착용할 한복의 치

수를 측정한 후 대회전(10월 8일 총예행 연습시)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마침 10월 8일은 일요일이고 국제심판 보수교육이 있는 날이어서 한번 심판을 보고 싶은 욕심에 신청을 하고 부대에 복귀하였다.

드디어 10월 8일 총예행 연습전에 국기원에서 많은 외국인과 국내 사범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제심판 보수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국제심판보수교육은 금번 세계대회에 한번 심판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범들에게 이론과 실기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일부사범들로부터 불만사항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교육의 준비와 내실화가 외국인에게 종주국으로서 여려가 지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국기원 마루바닥에 앉아 이론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으며 저마다 심판 배경을 원하는데 몇 사람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그러나 차후에 볼 수 있으리라 믿고 잠실 실내 체육관에 도착하여 오후 2시에 총예행 연습에 참가하였다. 10월 9일 한글날 있을 대회의 입장식 예행 연습은 제일 먼저 진행될 세계대회의 "간판"격이어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기(크기: 사방 6M)를 1조는 한재규, 이제봉 2조는 하석광, 황용수 3조는 허송, 강의성 4조는 최정도, 장승화씨로 편성된 역대 챔피언이 들고 입장하였다.

역대 챔피언의 기용은 그동안 대회와 무관하게 여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 내보내던 방식을 탈피해 태권도만의 특성을 살린 좋은 착상이었고 인상적이며 공감이 가는 것이었다고 본다.

다음날(10월 9일)오전에는 남자부 플라이급과 웰터급 예선이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되고 여자부는 핀급만이 실시되었다. 여기서 첫경기인 남자부 핀급을 관전하고 느낀 점은 세계는 공존하며, 저마다 최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고 승리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구나, 또한 앞서가는 자는 항상 뒤따라 오는 자에게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그후 중식을 마치고



허송씨외에도 많은 전세계챔피언들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참가했다.

13시 30분부터 13시 55분까지 식전행사로 이루어진 인천시립무용단의 고전 무용은 외국인 임원, 선수 및 관중으로 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입장식이 거행되자 전날의 연습 때와는 달리 스탠드를 꽉메운 관중들이 모인 곳에서 역대 챔피언의 한사람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금지와 자부심을 한껏 만끽할 수 있었다.

드디어 개회식에서 힘찬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계대회의 막이 올랐다. 오늘의 준비가 완벽하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는데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한복을 입고 기를 들고 입장하는 선수와 국가기를 게양하는 자가 역대 챔피언이라는 소개가 있었으면 하는 점과 TV 중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였더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다.

개회식을 마치고 예선 경기가 진행되면서 역대 선수권 보유자는 메인석좌측에 앉아 관람을 하도록 배려하였는데 이는 역대 챔피언으로서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라 태권도인으로서 큰 보람과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대회에서는 좀더 운영요원으로서 동참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외국에 사범으로 나간 대표선수들에게도 가능한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함께 만나 태권도 발전을 모색하는 대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내가 세계대회에 출전했던 제2회와 3회 대회 때만해도 경기장은 마루바닥이었으나 지

금은 매트를 깔았는데 경기측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타당성을 살린 시설이라고 보며 아울러 경기운영과 경기 진행을 위해 전광판 사용으로 매회전 마다 점수와 경고를 즉시 공표하여 선수와 관중들에게 판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것 등은 지난날 나의 생활때의 심판 불신을 말끔히 씻어 주었으며, 머리, 팔, 다리 보호대 착용으로 선수의 안전도와 경기의 안정감을 높여준 점은 선수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느꼈다. 한편 관람하는 관중들을 보았을 때 유년부의 증가가 급속화되고 있다고 한 눈에 느낄 수 있었지만 유년부 관중을 인솔한 교사, 사범들의 공중도의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여 장내를 소란스럽게 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회식 참가후 경기를 관람하고 나는 바쁜 부대임무 때문에 야간열차로 부대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역대 태권도 챔피언이며 태권도로 연금 혜택까지 받고 있는 나는 태권도종주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계대회 관람을 놓칠 수 없어 상관의 허락을 얻어 토요일 새벽 6시에 큰 아들 원이와 작은 아들 현이, 내자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지금까지는 TV를 통해서 경기를 보았지만 그날은 체육관에서 직접 마지막경기인 남자 미들급과 여자웰터급 경기를 보았는데 남자의 체급은 나와 같은 체급이라 관심을 쏟고 보았는데 선수가 코치와 호흡일치가 안되고 있어 안타까웠고 우리 선수에게 다양한 공격방법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으며 미국과 한국이 대전한 여자부 웰터급 결승전에서의 경기 판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보여졌다.

특이한 것은 미국 선수는 코치의 말을 잘 들도록 교육이 되어 있었으나 심판판정에 복종하는 교육은 잘 안되어 있었다고 본다.

한편 미등교생의 시범과 성인 시범단의 시범은 높은 난이도가 곁들여진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사과를 머리위에 올려놓고 회전하여 격파하는 시범은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묘기

에 치우치기 보다는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확한 품새를 선보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세계대회에서 종주국태권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가지를 지적해 보면

첫째, 지도자는 유능한 선수생활과 이론을 겸비한 자를 선발하여 대표선수들을 지도하여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분석하고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무도와 무술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가식과 허위가 없는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훈련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둘째, 지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지명제를 지양하고 이론, 실기,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 임용하여야 한다.

셋째, 선수는 항상 복수로 선발하여 태능선수층에 입촌하여 장신화와 체력열세에 대응하는 방법채택, 자기기량 향상과 정신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네째,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한 선수발굴과 특히 경량급 선수와 중량급 선수의 훈련방법을 모델화하여 연마하고 또 체중을 감량 또는 증가하는 선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방법은 국내 운영방식을 국제대회 경기운영 방식으로 조정(라이트경기과 야간경기, 경량급, 중량급 1체급 종결)해야겠다.

여섯째, 수비위주의 훈련방법에서 선제공격과 기습공격 방법을 연마하여야겠다.

일곱째, 선수와 코치, 감독간에 의사불란한 지휘체제와 호흡일치(싸인법적용)를 도모한다.

여덟째,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체력의 열세를 보강하고 단타 위주의 공격에서 연타와 기술적인 동작훈련 강화(예를 들면 체공시간 연장법, 공중뛰서 두번차기).

아홉째, 선수관리 체제를 과학화하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이도가 높은 기술동작을 개발하고 주먹과 발의 연결동작과 전술에 의한 운영방법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

특집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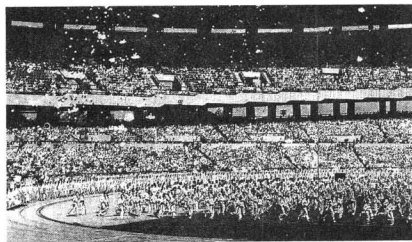
80년대 8대뉴스

격동의 8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10년, 그 속에서 우리 태권도계는 어떻게 달려 왔는가.

90년대를 맞이하여 되돌아본 태권도의 80년대 주요일지와 기억에 남는 8대 뉴스를 꼽아본다.

1. 태권도, '88서울올림픽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참여



1985년 6월 4일, 동베를린 제90차 IOC 정기총회

80명의 벽안의 IOC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양의 무도스포츠인 태권도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시범종목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된 후 꾸준히 추구해온 태권도의 국제화, 현대스포츠화에 쏟아온 노력과 한국 스포츠 외교에 의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외국 스포츠종목의 범람 속에 우리 민족 고래의 무도였던 태권도가 올림픽의 한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므로써 태권도의 우수성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전 세계에 입증한 것으로 본다.

1988년 9월17일부터 21일까지 장충체육관

에서 개최된 태권도경기는 남자 24개국, 여자 16개국이 참가하였고 300여명의 태권도가족이 사명감을 갖고 지원 또는 자원봉사요원으로 참여하여 대회운영면에서도 격찬을 받은 바 있다.

92년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므로써 앞으로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의 가능성을 높혔다.

2. 김운용회장,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



"IOC 집행위원회는 IOC위원장, 부위원장 3인 및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IOC행정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올림픽헌장 제15조).

86년 10월, 한국의 6번째 IOC위원으로 피선

된 김운용회장은 88년 9월 15일 제94차 IOC총회(서울)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므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현직 IOC위원 93명 중에서 11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의제결정, 재정관리 등 IOC업무의 중추기능을 맡는 수뇌부로서, 한국에서의 집행위원 탄생은 김회장 개인의 능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 스포츠의 개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서독의 유력 일간지인 알레마이네 차이퉁지는 김회장의 노련한 스포츠 외교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93년 차기 IOC위원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한 바 있다.



3. 세계선수권대회 정국현 4연패, 김종기 3연패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7개.

정·김 두 사람이 태권도 경기사에 만들어 놓은 커다란 궤적이다.

세계대회는 1973년에 창설되어 격년제로 89년 9회에 이르기까지 77명의 세계챔피언을 배출하며 전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의 선망의 무대가 되어 왔다.

태권도는 물론 타 종목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세계대회 3, 4연패는 두사람을 80년대가 낳은 태권도스타로 주저없이 꼽을 수 있는 불후의 이력이기도 하다.

김종기 사범은 77년 3회대회부터 82년 5회대회까지 밴텀급에서, 정국현 코치는 82년 5회대회부터 87년 8회대회까지 L-미들과 웰터급, 2체급에서 세계의 간판 얼굴로 군림하기까지, 그들의 자기 투쟁의 과정은 세계무대를 꿈꾸는 후배 수련생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이다.

현재 김종기 사범은 고향인 장항에서, 정국현 코치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90년대 스타 양성을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다.

4. 태권도 실업팀 창단

태권도 경기에서 환갑이랄 수 있는 25세 이

상의 노령(?)의 선수들이 지칠줄 모르고 뛰고 있다.

강원도 일반부의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83년 4월 창단된 설악케이블가를 선두로 85년 제천시청, 86년 서울지하철공사, 88년 현대자동차, 89년 현대정공 등이 실업팀을 창단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속을 갖지 못해 일찍 은퇴하는 선수들에게 계속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하므로써 우수선수의 배출과 일반부의 기량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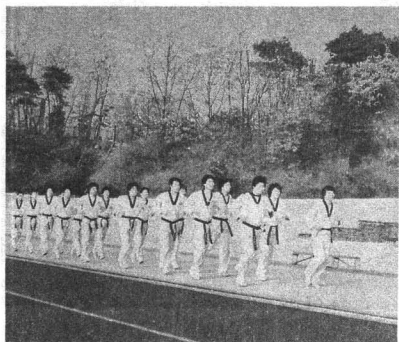
선수들의 조기 은퇴를 막아 국제 대회의 2, 3연패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실업팀의 창단은, 향후 우수선수를 통한 기업의 홍보효과와 시도지부의 지원아래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5. 국가대표 선수들에 각종 혜택

연금수혜자 16명, 주택분양자 10명, 병역특례자 26명, 훈포상수혜자 218명

80년대초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올림픽정식종목을 중심으로 우수선수의 보호·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올림픽종목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에서 타 종목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에 들어 국제 스포츠계에서 격상된 태권도의 위상과 유관기관과의 접촉을



통한 활발한 행정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타 종목보다, 중주국이라는 잇점에 따른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우수한 자질의 선수가 태권도로 유입될 밝은 전망이다.

6. 경희대, 유도대 태권도학과 신설

태권도학(跆拳道學)

태권도가 4년제 대학에서 정규 학문으로 채택되어 연구되고 있다.

82년 2월 대한유도학교,

83년 2월 경희대학교에 신설된 태권도학과는 4년이라는 정규교육기간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우수한 자질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타 종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경기학과 의 개설은, 태권도의 학문적 가치와 기술의 과학성을 체계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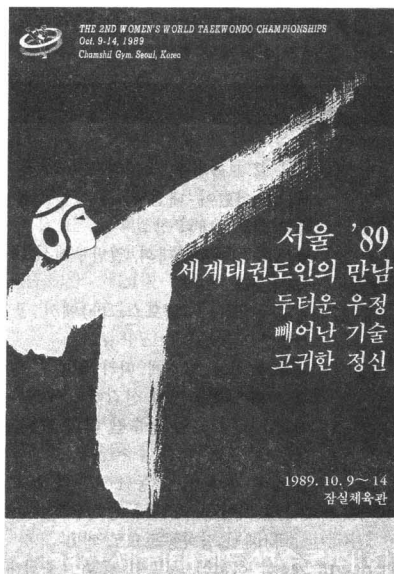
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창설

여자태권도 선수들에게 세계무대가 열렸다.

87년 10월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전 세계의 여성태권도인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여자태권도인구의 급증추세에 발맞추어, 투기 종목 중 사상 처음으로 창설된 세계 여자선수권 대회는 태권도가 남자들만의 종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각 국제대회의 시범 및 친선경기로 치루어졌던 여자부 경기가 독립 대회로 창설되므로써 향후 국내 및 국제 여자 태권도 경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경기규칙과 용구의 과학화

대나무로 만든 호구

70년대 태권도 경기를 위해 갖추어진 최소한의 용구였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부도 스포츠의 경기 용구로는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었다.

협회와 세계연맹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80년대 들어 많은 연구를 통해 매트, 머리보호대 등 각종 보호장비를 개발, 의무 착용케 하

므로써 태권도경기에서의 부상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전광판을 사용해 경기의 상황을 매회전 채점하여 심판의 판정시비를 줄여 나갔다.

제9차 세계연맹 정기총회('89. 10. 7)에서는 전자호구의 사용으로 몸통부위의 채점은 발신기에 의해 자동 채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기 규칙의 문제점에 대폭 메스를 가함으로써 경기의 과학화를 추진하였다.

완벽한 룰과 신체보호장비는,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의 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80년대 주요일지

<1980년>

- 3. 1 심사 및 교육업무, 국기원으로 이관
- 5. 4 제1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교 태권도대회 창설
- 7. 2 제15회 대통령기대회, 일반부에서 대학부 분리
- 7. 17 제83차 IOC총회(모스크바)에서 공식종목으로 승인
- 9월 체육계 정화 방침에 따라 집행부 일괄 사퇴 (80년 12월 신집행부 구성)
- 11. 1~5 제1회 국제 군인 선수권 대회 (서울, 장충체)
15개국 참가, 금 9, 동 1
- '79. 제33차 CISM 총회(태국, 방콕)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
- 11.14~16 제4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중화대북)
12개국 참가, 금 9, 은 1

<1981년>

- 3월 WTF, 뉴스레터 발간
- 4월 WTF, ICSPE(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에 119번째 회원 단체로 가입
- 7.24~8.2 제1회 월드컵게임(미국, 산타클라라)
14개국 참가, 금 9, 은 1

<1982년>

- 2월 대한유도학교 태권도학과 신설
- 2.24~27 제5회 세계선수권대회 (에콰도르, 과야킬)

50개국 참가, 금 8

- 김중기, 대회사상 최초로 3연패 달성

- 6.2~9 제38회 국제스포츠영화제(이태리, 토리노)에서 '국기 태권도'(김성인 감독, 국립영화 제작소) 특별상 수상
- 12. 1 이병로(본회 창립위원) 관장 타계
- 12. 9~11 제5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싱가폴)
17개국 참가, 금 9, 은 1

<1983년>

- 2월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신설
- 4. 22 강원도 설악케이ابل카팀 창단
- 9. 19 제6차 WTF 총회(덴마크)에서 현재 금(중량)으로 경기규칙 개정
- 85. 1. 1부터 적용
- 10.21~23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덴마크, 코펜하겐)
48개국 참가, 금 8, 동 1
- 12.10~11 제1회 국제대학선수권대회 (서울, 국민대체)
14개국 참가, 금 8, 동 2
- 12. 17 배영기 (본회 전기술심의회의장) 관장 타계

<1984년>

- 84. 1.27 국가대표선수 12명, 최초 병역 특례 혜택 수혜
- 9.11 국가대표선수 7명 최초로 체육연금 수혜

(은장 1명, 동장 6명)

11. 9~11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필리핀, 마닐라) 금 9

<1985년>

6. 4 제90차 IOC 총회 (동베를린)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
6. 6 충북 제천시청팀 창단
7.25~8.4 제2회 월드컵게임 (영국, 런던) 금 7
9. 4~8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서울, 잠실체)

53개국 참가, 금 7, 은 1
-여자부 시범경기 실시, 금 4, 동 3
-최초로 전광판 도입, 채점 공개

- <1986년>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호주, 다아
4.18~20 윈) 금 6, 은 1, 동 1

-여자부 경기 채택
-금 3, 은 2, 동 2개로 중화대북 (금
3, 은 3, 동 2)에 밀려 준우승

7. 4~6 제1회 월드컵대회 창설 (미국, 콜로
라도 스프링즈)
16개국 참가, 금 7, 은 1

8. 12 서울 지하철 공사팀 창단
9.30~10.3 제10회 아시아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참가

-금 7개로 종합 2위에 크게 기여

10. 17 김운용 회장, 제91차 IOC 총회 (스
위스 로잔)에서 한국 6번째 IOC 위
원으로 선출

10. 25 김희장, 제20차 국제경기연맹총연합
회(GAISF) 총회에서 회장으로 피
선

- 11.29~30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미국, 캘
리포니아)

남자부 금 5, 은 1, 동 2
여자부 금 5, 은 2, 동 1
-FISU에서 공식종목으로 승인 (세
계대학스포츠연맹)

<1987년>

- 5.15~17 제2회 월드컵대회 (핀란드) 16개국
참가, 금 5, 은 2

10. 7~11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스페인, 바르
셀로나)금 6

-정국현, 대회 4연패 달성
제1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창설
(금 3, 은 2, 동 1)

- 10.25~11.1 제2회 국제군인선수권대회 (서울)
금 7, 은 1

11. 3 국기원 개관 15주년 기념사업으로
'태권도 교본' 발간

11. 7 태권도 학회 발족

<1988년>

- 2월 기술심의회에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실업팀 창단

- 3.23~25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네팔, 카투
만두)

남자부 금 8, 여자부 금 7

- 8월 교육용 비디오 교재 (한·영어 본)
출간

9. 15 김희장, 제94차 IOC 총회 (서울)에
서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

- 9.17~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시범종목
으로 참가

남자부 금 7, 은 1

여자부 금 2, 은 3, 동 3

<1989년>

- 2월 시도지부에 5단 심사권 이양

- 3월 현대정공, 실업팀 창단

4. 11 전국 코치 상조회 결성

4. 25 IOC 집행위원회(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92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 시
범종목으로 채택

- 7.20~23 제3회 월드컵게임 (서독, 칼스루에)

- 7.28~30 제1회 경희대총장기타기 전국고교대
회 창설

- 7.20~23 제3회 월드컵게임(서독, 칼스루에)
남자부 금 7

여자부 (통합 4체급 중) 동 4

- 10.9~14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 (서울)
금 7, 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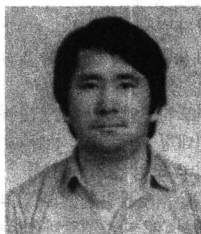
제2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금 5, 동 2

12. 3 대한태권도협회, 올림픽회관으로 이
전

내가 기대하는 90년대 태권도

—태권도 담당기자에게 듣는다—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를 맞이하면서 태권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 각 언론사의 태권도 담당기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일선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며 보고 느낀대로 객관적으로 태권도의 위상을 지적해 준 기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김 학 수

세계일보 기자

70년대와 80년대 국제적인 보급에 힘썼던 국기인 태권도는 9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종목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태권도가 전세계 스포츠인들로부터 공인받기 위해선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국내태권도인들이 김운용 세계태권도 연맹총재를 중심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크게 힘써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권도가 세계스포츠 종목으로 자타에게 내세우려고 할 때 한편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은데 크게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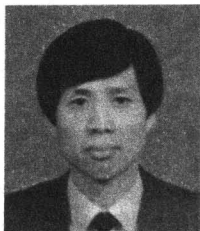
태권도는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88년 '서울올림픽서 시범종목으로 선을 보였으나 전세계인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실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이 되지 못하는 원인은 태권도인 스스로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북한과 친밀한 국제태권도연맹이 심한 반목으로 대립양상을 벌여왔다.

한 목소리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힘을 써도 어려울 판에 서로 나뉘어 알력과 내분의 추태를 전세계스포츠인들 앞에서 일으켰다.

사마란치 IOC위원장도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 채택가능성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90년대의 태권도는 대내외적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적절한 때인 만큼 태권도인들은 진정한 세계스포츠의 위치 구축에 대응 단결해야 한다. *

“체육부는 태권도에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강 석 재
코리아 헤럴드 기자

한국 스포츠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완벽하게 치름으로써 그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었다.

특히 국기태권도는 잠실벌에서 펼쳐진 '88서울올림픽 개회식 행사에서 대규모 시범을 통해서 전 세계 수십억인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자아내고 그 위용을 과시했다.

'88서울올림픽대회에 시범경기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92 바르셀로나에서도 다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우리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는 '90년대를 맞아 진정한 세계 스포츠로 정착 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70년대에 태권도 사범들이 전 세계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서 국위를 선양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에는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우슈(쿵후)를 완전히 제패(?)하고 세계의 스포츠로 발돋움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의 가장 큰 과제는 '96년 하계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114개 회원국을 거느린 WTF(세계태권도연맹)는 정식종목 채택에 필요한 IOC헌장 제반 조건을 이미 오래전에 갖추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스포츠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운용 태권도협회장은, IOC 집행위원이며 GAISF(국제경기연맹연합회) 회장으로 국제스포츠계를 이끌고 있다. 최근 서독 유력 일간지는 김총재를 차기 IOC위원장으로 지목한 보도를 한 바 있다. 따라서 김총재를 정점으로 모든 태권도인의 일치단결된 힘을 모아 진정한 국기로의 태권도「bum」을 국내외에 조성하고 정식종목 채택을 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식종목으로 세계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립된 이론과 경기규칙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본고를 빌어서 체육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태권도에 보다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는 것이다.

'90년대를 맞이하면서 태권도의 진정한 세계화와 정식종목 채택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모든 태권도인들과 아울러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내가 기대하는 90년대 태권도 - 태권도 담당기자에게 듣는다.



강 호 식
스포츠서울 기자

“고향의 어머니가 딸에게 부쳐주는 ‘푸짐한 준비물’이 우리에게도 필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다른 나라에게도 금메달 한 두개쯤 줘야지 안그래?”

“그렇기도 하지만 이기지도 못하는 선수에게 승리를 줄 순 없는 거 아냐? 실력으로 이기도록 잘 가르치는게 더 중요하잖아.”

지난 10월 어느날 세계선수권대회가 벌어지고 있던 잠실체육관의 기자회견에서 몇몇 기자들과 대회조직관계자들이 아침 TV로 중계되고 있던 체급결승전을 보면서 나눈 대화의 일부분.

송고마감시간이 조금 남아있던터라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들이었지만 결국 담소의 결론부분에서는 태권도의 국제적 지위가 실로 대단하다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으로 끝났다.

근대사의 시점으로 접어든 이후 과연 우리의 어떤 문화가 현재의 태권도만큼 다른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우리 스스로 이만큼의 주인공세(?)를 했던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국수주의적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태권도를 생각하면 신바람이 난다. 우리의 것이 해외로 나가서 싸구려시장에서 헐값으로 덩판당하기도 않고, 상대방에서 내세우는 것까지 요구조건에 떨어 맞추느라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라도 더 배워줬다고 한번 더 오시라고 몸살을 떨고 아니면 앞다퉈 몰려와서 눈치껏 익혀가지고는 종주국에서 유했했다고 자గు심을 느끼는 상황이 온통 즐거운 것이다.

‘전체급 우승’ ‘종합 1위’ 등과 같은 수식어를 쓰기에 어딘가 겹언쩍기까지 한 태권도. “공자도 고향에서는 성자가 아니라 열집아이일 뿐”이라는 비유가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한국의 태권도는 인류에 이바지하는 가장 한국적인 세계문화화의 대열에 서기 위해 이제 짧은 기간에 국제스포츠무대에서 쌓아올린 경이적인 입지에서 한걸음 물러나 한층 어려운 수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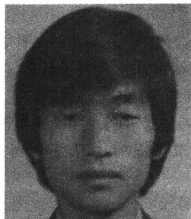
올림픽정식종목에 채택되는 정점의 시기에서부터 당면하게 될 상황. 심판진의 정실에 치우친 판정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 달라는 주문에서부터 보다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까지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내주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이러한 때에도 고향의 어머니가 항상 웃는 얼굴로 딸에게 철따라 명철따라 부쳐주는 된장이며 참깨같은 ‘푸짐한 준비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종종결음으로 집을 나서 냉기가 가득찬 콘크리트 건물 2층에서 훌쩍 도복만을 입은 채 기합소리 우렁차게 주먹을 지르고 양발을 차올리며 이마에 땀을 흘려내는 각 가정의 ‘장군감’들의 열기와 매서운 눈놀림과 재빠른 동작으로 상대의 허점에 발뒤축을 꽂아넣는 선수들의 집념이 숨쉬고 있는 한 종주국의 영예는 우리의 것임이 틀림없지만 오늘 하루를 준비하여 다음 세대에 이 영광을 물려줄 수 있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는 90년대에는 선수와 코치, 사범 등 ‘현장의 목소리’와 협회, 세계연맹의 마음이 조화를 이뤄 <우리의 태권도=세계의 태권도>라는 또 하나의 정신적 자부심을 이루기 바란다.*

내가 기대하는 90년대 태권도 - 태권도 담당기자에게 듣는다.

“스포츠화일변도에서 탈피, 무도로서의 순수성과 목적을 보존, 발전에 관심을 기울일 때,,



오 병 남
서울신문 기자

얼마전 중국의 풍물을 소개하는 TV르포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보통의 중국인들이 이른아침 공원·약수터 등에서 쿵후(우슈인지도 모르겠다)를 단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하나 둘씩 모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호흡법·폼새 등을 익히고 있었다. 그것은 쿵후(우슈)가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한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사회체육의 한 표본이라고나 할까. 아마도 국기라는 영예스런 타이틀과는 달리 대중 속에 깊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태권도가 90년대에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다.

태권도는 본래 단군·불교·도교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우리 고유의 생활 무도이다. 그

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특히 70년대 이후 급격히 스포츠화 하면서 흥미·형식적인 겨루기위주로 흘러 그 무도성(정신·철학)이 경시되는 현상을 빚었다. 물론 이것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일지도 모른다. 또 그러한 스포츠화를 통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종목(시범)에 채택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스포츠화일변도에서 탈피, 무도로서의 순수성과 목적을 보존·발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것은 88서울올림픽이후 모든 스포츠가 엘리트위주의 「보는 스포츠」에서 대중들의 생활 속에 자리하는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해진다. 또 도복을 입은 어린이들은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도장을 찾는 중·장년들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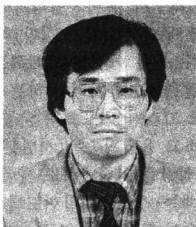
결국 90년대의 태권도는 대중의 걸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생활무도로서의 태권도와 스포츠로서의 그것을 분리, 스포츠로서의 세계화는 계속 추진하되 생활무도로서 대중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① 조직의 개편 ② 학문적 연구 ③ 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90년대의 「종주국 태권도」와 태권도인들의 몫이다.

90년대엔 이른아침 남산에서 한강변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지르는 우렁찬 태권도 기합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기대하는 90년대 태권도 - 태권도 담당기자에게 듣는다.

“인화와 단결, 연구·기획의 풍토조성이 절실”



이 상 민
연합통신기자

90년대 태권도계의 방향에 대해 몇가지 점을 지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때 망설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좋은 견해가 모이면 참고가 될 수도 있기에 몇가지 면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태권도계는 인화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현 집행부가 새로 출범했을 때 일부 인사들은 예전에 투서를 했기 때문에 발탁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투서할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풍토가 잡혀야 할 것이다.

체육계도 예전보다 투서와 연관장을 돌리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데 태권도계가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협회 및 세계연맹 간부들의 단합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기전 협회와 세계연맹 관계자들은 충분한 홍보자료를 내어놓지 못했다.

협회는 세계연맹의 일이니 세계연맹에 미루는 눈치이고 그 때문에 보도는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서로 긴밀하게 업무 협조 체제가 될 이루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태권도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기획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급단계를 넘었으니 이제 차분히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실업팀 창단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단체전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업팀이 기업 의 이미지나 팀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태권도장의 사회체육도장으로서의 방향도 강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현재의 열성팬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고정팀닥터제나 스포츠맛사지사제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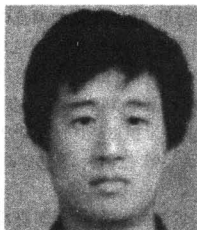
스포츠과학발전에 발맞추어 현재 각 종목이 팀닥터제나 스포츠맛사지사를 활용하고 있다.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태권도계도 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나 태권도계가 다 같이 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해 합심하여 노력해야겠다.*

내가 기대하는 90년대 태권도 - 태권도 담당기자에게 듣는다.

“태권도의 국제적 평준화가 올림픽정식 종목 채택의 지름길”



최 규 일
일간스포츠 기자

「한국 역시 중주국」 「한국 전체급석권」 「9연패, 대기록」.

묵은 태권도 스크랩에서 한국태권도의 지난 족적을 들춰볼 때마다 자부심보다는 쓸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담당기자로써 지난 10월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치른 솔직한 심정은 「집안잔치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점이었다. 국기(國技)태권도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선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한국의 일방적 독주가 90년대까지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게 바람이다.

한국태권도인들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무도인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리며 고의로 지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외국 태권도를 한국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심판의 공정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선수들의 현란한 기술과 과감한 투지는 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세계선수권이란 감투를 쓴 국제대회가 국내대회 수준을 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해외기술보급에 너무 인색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태권도 전력의 국제적 평준화가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의 지름길이다. IOC는 금메달이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몰릴 종목을 결코 정식종목에 넣지 않을 것이다.

유도의 경우 이제 중주국 일본이 더 이상 유도 최강국은 아니다. 유도는 한국, 소련, 프랑스 등 신흥강국들이 부상(浮上)하면서 더욱 박진감 있고 흥미로운 경기가 됐다.

그러므로 한국의 태권도인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이의 해외보급, 재외사범들의 연수 등을 통해 전력평준화에 한 몫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또 심포지엄 등 경기외적 교류를 통해 활발한 스포츠 외교로 저변을 넓히고 지구촌 가족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이다.

「월척을 낚기위해 피라미들을 놓아주는」 강태공들의 지혜를 90년대 한국태권도인들에 기대해 본다. *

내가 기대하는 90년대 태권도 - 태권도 담당기자에게 듣는다.

“외적인 성장만을 거듭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태권도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하 성 봉
한겨레신문 기자

한국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8체급 중 남자는 7개체급을 여자는 5개체급을 석권, 중주국의 면모를 한껏 과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종합우승에 이어 1년뒤 다시 열린 국제대회에서 남자는 9연패, 여자는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쾌거로 깊이 기억될 만하다.

더구나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도 시범종목으로 또다시 선보이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60개국 이상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 이후 올림픽정식 종목으로의 채택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태권도가 단지 한국만의 종목이 아니라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종목임이 입증됐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면적인 화려함과 교차되는 또다른 이면의 음영은 과연 태권도가 국기로 국내에 발판을 굳히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업팀이라고는 지하철공사,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외에 내세울 것이 없으며 국내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같은 팀 소속선수외에 관중석은 비어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매스컴 또한 레슬링, 유도 등 다른 격투종목에 비해 관심을 적게 기울이는 편이며 기껏 태권도가 TV화면에 등장할 때는 경기자체보다 큰대회의 식전행사로 치뤄지는 매스게임 정도의 흥미거리에만 그치고 있다. 즉 겉으로의 외형적인 발전속도에 비해 국내에서의 태권도의 입지는 점차 위축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친밀해야 할 종목이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지도자와 협회관계자들은 이같은 외면적인 성장만을 거듭하는 태권도정책이 장기적으로 태권도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경기성만을 강조 무리하게 태권도를 「스포츠화」시켜 고유전래의 품새와 정신이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한편으로 태권도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지도자들로부터 협회의 운영이 지나치게 관료적이며 체육인들의 복지정책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소리도 들린다.

어느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지만 새해부터 협회는 우선 내적인 면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말로 전국에 3천여개의 도장과 6백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태권도가 일반대중과 함께 사회체육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태권도경기

제7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9월 27일 - 30일, 안양중앙국교체육관

7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경기도내 시군에서 열렸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23개 시도지부 및 해외지

부에서 총 2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34개 종목에 부분 시도 대항을 펼쳤다.

「참된 마음, 참된 모습, 참된 화합」을 표방한 '제70회 전국체육대회는 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한 경기도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도민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지역 성화봉송을 통해 체전의 분위기와 열기를 확산시켰고 각 경기장마다 부녀회 자원 봉사자들이 나와 열무국수를 무료로 제공해 참가자들을 호분하게 하기도 했다.

태권도 경기에는 15개 시도에서 고등부 131명, 대학부 129명, 일반부 133명 등 총 393명이 출전한 가운데 안양중앙국교체육관에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벌어졌다.

이번 경기는 어느 대회 때보다도 경기관정에 대한 불만 및 불복으로 경기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많은 소청이 제기되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개최도인 경기도는 34개 종목중 17종목을 우승하며 서울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나 태권도 경기에서는 서울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태권도 단체성적

시 도	점 수	순 위
서울	2488	1
경기	1527	2
전남	1501	3
경남	1267	4
대전	1115	5
전북	1086	6
광주	1065	7
부산	1057	8
제주	954	9
충북	873	10
인천	732	11
충남	709	12
강원	707	13
경북	385	14
대구	375	15



고등부 제급별 우승자



대학부 제급별 우승자

입상자명단

■ 고등부

체 급	등 위	성 명	학교명	시도명
핀 급	1	지 환	여 수 고	전 남
	2	김인경	성 동 고	서 울
	3	정주환	대 전 체 고	대 전
	3	송치광	금 천 고	충 북
플라이	1	정동현	서 울 체 고	서 울
	2	조현식	전 남 체 고	광 주
	3	곽석근	금 천 고	충 북
	3	이강희	예 산 고	충 남
밴 텀	1	이안호	부 산 체 고	부 산
	2	성대중	강원사대부고	강 원
	3	정충민	한영고(전남)	전 남
	3	이영수	예 산 고	충 남
페 더	1	정광채	관 악 고	서 울
	2	김현철	풍 생 고	경 기
	3	김동기	학 다 리 고	전 남
	3	정을진	전 북 체 고	전 북
라이트	1	류충환	녹 동 고	전 남
	2	김광수	풍 생 고	경 기
	3	고병국	남 주 고	제 주
	3	신경수	대 전 체 고	대 전
웰 터	1	김정규	선 인 고	인 천
	2	김태광	예 산 고	충 남
	3	최정복	동 성 고	서 울
	3	김종부	벌 교 고	전 남
미 들	1	강승수	오 현 고	제 주
	2	김현주	제 원 고	충 북
	3	김형태	전 남 체 고	광 주
	3	손정락	경 남 체 고	경 남
헤 비	1	구기정	대 전 체 고	대 전
	2	이재영	한 성 고	서 울
	3	정윤길	홍 산 농 고	충 남
	3	이호근	경 남 체 고	경 남

■ 대학부

체 급	등 위	성 명	학교명	시도명
핀 급	1	서성교	한 국 체 대	서 울
	2	지재기	동 아 대	부 산
	3	신민철	전 북 군 산 대	전 북
	3	구동신	경 상 대	경 남
플라이	1	김양식	한 국 체 대	전 북
	2	선상준	청 주 대	충 북
	3	송인한	경 회 대	경 기
	3	조성호	계 명 대	대 구
밴 텀	1	양춘열	한 국 체 대	전 북
	2	하태경	한 국 체 대	서 울
	3	이상태	유 도 학 교	경 기
	3	심우현	동 아 대	부 산
페 더	1	강창모	동 아 대	부 산
	2	김병철	한 국 체 대	경 북
	3	윤정욱	경 회 대	경 기
	3	임채수	유 도 학 교	전 남
라이트	1	박상로	한 국 체 대	인 천
	2	김관석	경 상 대	경 남
	3	오세운	충 남 대	충 남
	3	오병철	한 국 체 대	제 주
웰 터	1	박봉권	한 국 체 대	서 울
	2	임진남	관 동 대	강 원
	3	김태형	한 국 체 대	세 주
	3	김성택	조 선 대	광 주
미 들	1	김병기	제 주 대	광 주
	2	강운신	제 주 대	제 주
	3	윤순철	경 회 대	경 기
	3	송철진	경 상 대	경 남
헤 비	1	김용귀	충 남 대	충 남
	2	박종범	한 국 체 대	서 울
	3	김정태	경 기 대	경 기
	3	박경철	관 동 대	강 원

■일반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명	시도명
편	1	이해진	부산시 협회	부 산
	2	전동준	서울지하철공사	서 울
	3	김영화	서부 체육관	경 기
	3	강철우	전 북 협회	전 북
플라이	1	인해진	서울지하철공사	서 울
	2	정재정	지성체육관	대 구
	3	최 천	경기도 협회	경 기
	3	오영주	상 무	전 북
밴 텀	1	지용석	충 북 협 회	충 북
	2	윤희준	현대정공 (주)	경 남
	3	전용환	경기도 협회	경 기
	3	허재영	살악케이بل카	강 원
페 더	1	유명식	현대자동차 (주)	경 남
	2	정승환	서울지하철공사	서 울
	3	이선장	대전, 경희대학원	대 전
	3	김종식	전 남 협 회	전 남
라이트	1	박호상		서 울
	2	신하철	광주시협회	광 주
	3	김상근	살천포 체육관	경 남
	3	김미봉	전 남 협 회	전 남



일반부체급별 우승자

체급	등위	성명	소속명	시도명
웰 터	1	전정우	상 무	제 주
	2	김용수	현대자동차 (주)	경 남
	3	이동근	경기도협회	경 기
	3	차영준	전 남 협 회	전 남
미 들	1	박은식	전 남 협 회	전 남
	2	연기호	상 무	서 울
	3	노 신	상 무	경 기
	3	이강식	대전시협회	대 전
헤 비	1	이계행	광주시협회	광 주
	2	김광섭	상 무	전 북
	3	김재영	살악 케이블카	강 원
	3	이정진	서울시협회	서 울

태권도경기

'89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

11월 1일 - 3일, 국기원

한해동안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들만 출전해 체급별 최우수선수를 뽑는 '89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206명, 여자부 109명 등 총 315명이 출전해 체급별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열전을 펼쳤는데 특히 남자부는 각 체급별 우승자가 내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자동출전의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로 국가대표선발전을 방불케하는 기량이 돋보이는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편급에서 은광여고의 정현아선수가 결승전에서 전 국가대표이며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상명여대의 장이숙선수를 물리치고 편급 최강자로 부각했다.

남녀 최우수선수상은 밴텀급 1위를 차지한 권태호 선수(경희대 1년)와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선영선수(경희대 3년)에게 돌아갔고 지도상은 경희대의 전정우코치와 상명여대의 임신자코치에게 주어졌다.

여자 지도상 / 임신자(상명여대 태권도부 코치)

전국가대표선수로 맹활약을 펼친바 있는 임신자코치가 연 2년째 계속해 지도상의 영예를 안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88년 3월에 상명여대에 태권도부가 창단되면서 코치로 부임한 임신자코치는 지난해말 지도한지 1년도 안되어 우수선수선발전에 4명이 출전, 3명이 입상하였고 올해에는 6명이 참가해 금 2, 은 3 등 5명이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

상명여대 태권도부는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용숙소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지도자와 선수가 호흡을 맞춘 강도높은 훈련을 쌓아왔는데 임신자 코치는 오늘의 영광은 선수들이 본 대회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준 때문이라며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임신자코치는 올해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문턱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맞은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상명여대 태권도부가 여자국가대표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남자 지도상 / 전정우(경희대 태권도부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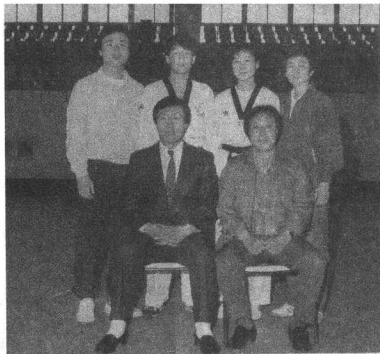
경희대 태권도부는 남녀최우수선수상을 휩쓸고 전정우코치가 지도상의 영광까지 차지해 올해 태권도부 최고의 경사를 맞았다.

「시합에 들어간 선수와 코치석에 앉은 자신

과 호흡이 일치하여 승리를 거두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쾌감을 맛본다」는 전정우코치는 「선수생활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전정우코치는 태권도의 명문인 동성고와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87년 9월부터 경희대 태권도부 코치로 활약해왔는데 학문에도 전념, 경희대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며 「태권도 선수의 기초체력 훈련 처방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 태권도의 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남녀최우수선수는 물론 지도상을 받은 코치도 모두 경희대 출신
(태권도학과와 김경자, 최영렬 교수와 함께)

남자최우수선수상 / 권태호(경희대 1학년)

동성고 재학시절부터 태권도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권태호선수는 고교 3학년 때인 88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88서울올림픽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는데 올해 또다시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금메달을 차지했고 올해의 마지막 대회인 우수선수선발전을 우승으로 마감하며 최우수선수상의 영광까지 안아 화려한 한해를 장식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핀급 우승, 대통령기대회에서 플라이급 우승, 우수대회에서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는 등 3개 체급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며 경량급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대학 1학년생으로 아직도 신장과 체중면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1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권태호선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체력과 기술을 보강해 내년도에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태권도계에서는 권태호선수가 기술면에서 뛰어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대회 4연패의 위업을 이루며 태권도 스타로서 명성을 떨친바 있는 정국현코치(현재 서울지하철공사 태권도부)의 대를 이을 태권도 재목감으로 손꼽고 있다.

여자최우수선수상 / 박선영(경희대 3학년)

올해초 춘계대학원맹전에 출전했다가 건골부상을 입은 박선영선수는 이어 치루어진 국가대표선발전에 불참해야 하는 불운을 맞았었지만 그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 올해 마지막 경기인 우수선수선발전에 참가한 것인데 뜻밖에도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최우수선수상의 영광도 안게되어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부상후 첫 출전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데다 평소보다 한체급 올려 출전했기 때문에 체력면에서 밀렸다는 박선영 선수는 특히 상명여대의 박진경선수가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고 한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 수련을 해온 박선영선수는 청산여상 재학 중에 호주에서 거행된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밴텀급 3위, 경희대 2학년때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밴텀급 3위 등을 차지한 바 있다.

과감성 결여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공격보다는 받아차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선영선수는 앞으로 적극적인 공격력과 체력보강으로 다시 한번 국가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여자부 체급별 우승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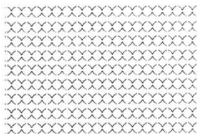
입상선수명단

■ 남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학년
핀	1	서성교	한국체대	1
	2	유병석	리라공고	2
	3	심성구	부산체고	3
	3	김인경	성동고	2
플라이	1	윤희준	현대정공	
	2	오영주	국군체육부대	
	3	권영수	성동고	3
	3	김철호	한국체대	4
밴텀	1	권태호	경희대	1
	2	김성진	송곡고	3
	3	권오철	청주대	1
	3	조영남	동아대	2
페더	1	하태경	한국체대	2
	2	함준	한국체대	4
	3	양정석	성균관대	1
	3	강창모	동아대	2
라이트	1	김상곤	삼천포체육관	
	2	이광로	한국체대	3
	3	김용수	현대자동차	
	3	박상로	한국체대	1
웰터	1	이종학	경희대	4
	2	김태형	한국체대	2
	3	차광재	유도학교	4
	3	황일선	대진체고	3
미들	1	이현석	동성고	3
	2	윤순철	경희대	4
	3	공두환	경희대	2
	3	이성훈	한국체대	1
헤비	1	노신	국군체육부대	
	2	김광섭	국군체육부대	
	3	이건원	한국체대	3
	3	이정진	신촌체육관	

■ 여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학년
핀	1	정현아	은광여고	1
	2	장이숙	상명여대	1
	3	유수진	오산여중고	2
	3	윤계순	문성여상	1
플라이	1	강경숙	상명여대	2
	2	양은정	영신여고	3
	3	박영신	문성여상	3
	3	김보영	천안여고	2
밴텀	1	이승민	영덕여고	1
	2	박동선	성신여대	1
	3	김혜선	영신여고	1
	3	서연화	천안여고	1
페더	1	박선영	경희대	3
	2	박진경	상명여대	2
	3	박연실	성신여대	3
	3	김윤희	영신여고	3
라이트	1	박정희	인천체고	2
	2	조향미	인천체고	1
	3	남정동	성신여대	2
	3	노경미	경희대	1
웰터	1	이영미	천안여고	2
	2	이성미	상명여대	1
	3	정윤경	방학중학교	3
	3	류설아	유도학교	1
미들	1	양인덕	상명여대	2
	2	김현희	경희대	4
	3	장철영	영신여고	3
	3	심현숙	고양여중고	3
헤비	1	백영미	경희대	1
	2	윤현정	문성여상	1
	3	함선미	천안여상	3
	3	정완숙	성신여대	4



태권도경기

제12회회장타기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10월 20일—22일, 국기원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한국체대



여자부에서 성신여대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10월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제12회 회장타기 전국대학대항태
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242명 여자부 40명 등
총 282명이 참가했다.

제7회대회 때부터 신설된 여자부 경기에서는
7회때부터 11회대회까지 계속 준우승에 머물던
성신여대가 금2, 은3, 동6개를 따내며 종합우승
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부 5연패의 위용을 자랑했던 경희
대가 성신여대, 유도대학에 밀려 3위로 밀려났
다.

남자부에서는 한국체대가 제9회 대회 때 우
승한 이래 3년만에 정상을 탈환했고 2연패를
차지했던 동아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명단

■남자부

체급	등위	성명	학교명	학년
편	1	서보훈	한국체대	1
	2	이경호	경희대	1
	3	양현석	동아대	2
	3	지재기	동아대	1
플라이	1	서성교	한국체대	1
	2	선상준	청주대	1
	3	조기현	경희대	2
	3	김영주	동아대	4
밴텀	1	임성욱	계명대	3
	2	권혁선	한국체대	2
	3	조영남	동아대	2
	3	배종임	동아대	3
페더	1	민태남	한국체대	1
	2	하태경	한국체대	2
	3	이육근	인천전문대	1
	3	윤정웅	경희대	2
라이트	1	심우현	동아대	2
	2	오병철	한국체대	2
	3	이제범	경기대	1
	3	장주동	청주대	2
웰터	1	이종학	경희대	4
	2	김동복	청주대	2
	3	양대승	한국체대	3
	3	김태형	한국체대	2
미들	1	박종범	한국체대	1
	2	김제경	동아대	2
	3	이성훈	한국체대	1
	3	김계남	목포대	3
헤비	1	김재욱	동아대	3
	2	박희석	경희대	2
	3	추교일	청주대	4
	3	최정주	경상대	3

■여자부

체급	등위	성명	학교명	학년
편	1			
	2			
	3			
	3			
플라이	1	조인경	유도학교	2
	2	장이숙	상명여대	1
	3	이남숙	성신여대	1
	3	배은정	성신여대	3
밴텀	1	이영	경희대	3
	2	박동선	성신여대	1
	3	박현숙	유도학교	2
	3	강경숙	상명여대	2
페더	1	김경숙	유도학교	1
	2	김성숙	성신여대	1
	3	김양우	청주대	3
	3	박선영	경희대	3
라이트	1	정은옥	상명여대	2
	2	석소정	유도학교	3
	3	김지영	성신여대	1
	3	남정동	성신여대	2
웰터	1	고재경	성신여대	3
	2	이정실	유도학교	1
	3	김유숙	성신여대	4
	3	이성미	상명여대	1
미들	1	김현희	경희대	4
	2	양인덕	상명여대	2
	3	류철아	유도학교	1
	3	이미라	성신여대	1
헤비	1	정완숙	성신여대	1
	2	방경애	성신여대	2
	3	백영미	경희대	1
	3			

김운용회장 스페인 최고 공로훈장 받아

김운용회장이 스페인 정부로 회의 조직위원회 조직 및 준비
부터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 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12일

최고 공로훈장을 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 올림픽회관 607호로 이전

본회 사무실이 1966년 7월부터 23년 4개월간 몸담았던 무교동 체육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2월 3일 88서울올림픽의 신화를 창조한 산실인 올림픽회관, 607호로 이전했다.

송파구 오류동에 위치한 올림픽회관에는 대한체육회 및 본회를 비롯한 가맹경기단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입주해 있다.

본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류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7호

▲전화번호 : 420-4271~3
420-3333 (교
환 643, 644)

▲FAX : 420-4274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성내역 하차 도보 10분거리

인사발령

10월 15일부터 전임 신규인 홍보실장 후임으로 총무담당 유호윤씨가 홍보과장으로 승진, 전보 발령을 받았으며 11월 1일자로 홍보담당에 도전영씨, 총무담당에 양인옥씨가 입사하였다.

유호윤 홍보과장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졸업

▲1985년 4월 1일 본회입사

도전영 홍보담당

▲1961년 경북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졸업

양인옥 총무담당

▲1962년 서울출생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졸업

▲1987년~1989년 태권도지도자연수원 근무

바로잡음

70호 11페이지 고단자 심사위원 명단과

53페이지 16회 중고연맹전 남중부 입상자 명단 중 오기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 고단자 심사위원

경북 예조해

· 중고연맹전 남중부

L-헤비급

1위 정해성(부천남중)

2위 박상균(구월중)

태권도소식

대한태권도협회 · 국기원 · 3개연맹 1990년도 사업계획(안)

월	일	사 업 명	장 소	집행기관
3	7-8	전국심판보수교육(1, 2, 3급 및 교직)	국기원	대한 태권도협회
	10	'90년도 1차고단자승단심사대회(6,7,8,9단)	-	국기원
	12-14	전국심판강습회(1,2,3급)(1차)	-	대한 태권도 협회
	15-24	제1기 3급 사회체육 및 64기 지도자교육	-	지도자연수원
	26-31	90년도 전국춘계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	대한태권도협회
4	9-27	제11기 2급 경기지도자 연수	-	지도자연수원
	10-11	'90년도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	-	대한 태권도 협회
	24-25	'90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발대회	-	-
	26-27	'90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	-
5	3-5	제17회 한국대학 태권도 연맹 개인선수권대회	-	대학연맹
	7-25	제1기 2급 사회체육지도자연수	-	지도자연수원
	11-12	'90년도 전국여자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	대한 태권도 협회
	19-20	제11회 한국국민학교 태권왕거루기대회	-	국교연맹
	21-26	제17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	-	중고연맹
6	7-16	제2기 3급 사회체육 및 65기 지도자교육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19-23	제25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협회	-	대한 태권도 협회
	30	'90년도 2차 고단자승단심사대회(6,7,8,9단)	-	국기원
7	5-6	전국소년체육대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4-15	제11회 체육부장관기타기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	국교연맹
8	20-25	제26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검 제17회 중고 개인선수권대회	미 정	중고연맹
	23-9/1	제3기 3급 사회체육 및 66기 지도자교육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9	8	'90년도 3차 고단자승단심사대회(6,7,8,9단)	-	국기원
	10-15	'90년도 전국추계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정	대한태권도협회
	14-15	제11회 체육부장관기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	국교연맹
	28-30	제13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항대회	-	대학연맹
10	5-16	제4기 3급 사회체육 및 67기 지도자교육	-	지도자연수원
	15-21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충 북	대한태권도협회
	23-11/10	제12기 2급 경기지도자연수	-	국기원(연수원)
	26-27	제16회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	-	국교연맹
11	8-9	'90년도 전국 남녀우수선수 선발대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9-12/7	제2기 2급 사회체육지도자연수	-	지도자연수원
12	8	'90년도 4차 고단자승단심사대회(67,8,9단)	-	국기원

1990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

1990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 (제4회)

대륙별 태권도 강국의 우수 선수들이 모여 수준높은 경기를 펼치는 월드컵태권도대회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9월 말경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대회인 '86월드컵대회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되었고 제2회 '87월드컵대회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3회 '89월드컵대회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집트카이로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여명의 열혈” 제3회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회

이란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여명의 열혈” 제3회 이란혁명기념태권도대회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스파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나라는 감독, 코치, 의사, 심판과 선수 8명 등 총 12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란은 회교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옹이 1979년 2월에 팔레비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이란공화국을 건설한지 10주



1988년 2월에 네팔에서 개최된 제8회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녀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팀.

년을 맞아 1988년 2월에 국제친선대회를 창설하였다.

1989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란의 테헤란에서 개최된 2회 대회에는 부산시협회 대표팀이 참가해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제9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아시아 태권도 연맹 주최로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가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화대북의 타이페이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아시아태권도인의 큰 잔치로 2년마다 개최되는데 우리나라는 1974년 서울에서 개최된 1회대회와 1988년 네팔 카투만두에서 개최된 8회대회에서 남자부가 전체급을 석권하며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한 바 있다.

제2회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 대학생 태권도인의 기량을 자랑하게 될 한마당이 4월 5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산안테에서 개최된다.

전세계 대학생 올림픽이라 불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관장하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가 1986년 7월 태권도를 공식종목으로 승인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FISU가 직접 주최하는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는 지난 198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제1회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회 국제스핑크스대회

이집트 태권도협회 주최로 제1회 국제스핑크스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기원 3차고단자(6·7단) 심사대회 고단자 24명 배출

국기원에서는 9월 23일 1989
년도 3차 고단자심사를 실시하
여 24명의 고단자를 배출했는
데 단별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6단

▲서울: 차웅섭 차정훈 윤
용근

▲경북: 정원식 신기철

▲경기: 홍인화

▲대전: 한성전 한성진

▲대구: 유길호 김진환 이

돈구

▲부산: 김행준

▲경남: 김학수

7단

▲서울: 김진위 이상언 유
옥규 허지희 김용길 박여중

▲경북: 김대원

▲전남: 김경호

▲대구: 정우득

▲전북: 임재봉

▲충남: 류봉호

지도자연수원 제62기 및 제63기 지도자교육실시 총 275명의 사범 배출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
지 제62기 지도자교육을 실시
해 총 172명의 수강자 가운데
157명의 사범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식에서는 이장열, 김
용호, 김수정, 김종호씨가 우등
상을 차지했고 이해운, 김진열,
신미숙, 윤영미씨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편 10월 12일부터 21일까
지 실시한 제63기 지도자교육
에는 134명이 수강하여 118명
이 합격했고 오명화, 이윤석,
김용선씨가 우등상, 서봉길, 우
덕희, 오명화, 온진호, 김천구,
김요준씨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62기 합격자명단

김기영 김승수 신미숙 강철환
신동진 유근수 김종호 박동래
진급철 정 민 박태규 송하주
김종오 김순원 김옥성 양관모
이관희 송기훈 정의석 김웅래
김진복 황인소 권준호 박현민
김진은 임성빈 박종섭곽성훈
전중수 박용구 박평신 김성진
유경열 전현석 김종철 이성희
박종진 정재홍 우종선 윤영미
안상민 임일혁 김태봉 최인환
구본열 이아성 이병호 김동운
김재현 인남환 장태호 황세연
김유상 구본기 김규현 윤성국
김영준 전승민 최상환 고영균
김용호 이장열 유만식 이해운
장경돈 서경미 박옥권 임문호
김종선 박성백 김주형 윤명기
우해옥 윤상민 임덕희 이해식
이현주 주운덕 권민현 최용학
박정순 정도영 신용국 이덕만
이상옥 김성진 송진기 김창석
박찬민 박두래 정인숙 이영현
송원호 정성화 김상영 이정동
이정미 우명순 손영식 임영수
김정섭 이은석 정일환 김건수
박창훈 박병석 박영우 박진만
홍광표 김진열 박경균 남용삼
정성훈 이주상 배두영 이선하
문창선 서경수 민방기 박기영
장영식 김병을 임풍곤 경종필
윤도규 윤종록 박상철 김정규
한중서 홍준표 성기석 천상욱
표기호 기재덕 김창복 남궁욱

태권도소식

권영균 김정학 정재환 김상훈
남재홍 정영준 이재학 김현산
김주규 김종채 이민석 김재근
김수정 우기조 전우근 추순두
최문근 최삼채 김명석 양홍기
장복향

제63기 합격자명단

문기용 송광복 안혁기 나대순
나창홍 박정호 김지용 서종식
문현식 정의철 박종관 이광욱
손보락 최선호 김관길 김종분

김현중 박남선 임종남 이상용
김범수 홍명철 은진호 손용순
한두희 조호준 한상철 이경호
이병창 임후양 강태면 이상민
문상동 서봉길 이기진 정군열
박영길 김상수 송종욱 최재성
안봉규 박태준 박경규 이윤석
전일병 이근훈 추완식 강철석
한규정 박광수 구본갑 강창남
신영호 엄용기 최호성 최봉용
강규진 노일환 이승원 박영륙
김용남 홍성오 이갑성 차대봉
황귀녀 최진유 윤주대 윤선구

송기문 남기정 임문혁 이무근
김진기 조정규 노진기 김호만
서경덕 박상용 신봉호 정일화
이진표 정술성 송태종 김종현
정삼조 임재용 사공진 이태룡
정형준 김임순 최호정 이동용
문성현 심규철 하경석 윤효래
이명석 이상규 심용덕 김호중
김훈태 이광노 김세경 이우상
김연호 안재영 주윤진 김형중
조영도 김용선 우덕희 김남미
손삼식 임호연 오명화 김천구
김요준 김진수

제10기 태권도지도자 2급 연수과정 총 280명 참가

경기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우수 경기도지도자 배출을 위해

실시되는 2급 경기지도자 교육
이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총

2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
에서 열렸다.

'89여성체육세미나 여성태권도인 15명 참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89
여성체육세미나가 11월 21일
부터 24일까지 진해훈련원에
서 국가대표선수 출신 여성 체
육인 등 각계에서 총 17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여성과 스포
츠」라는 주제하에 「여성 스포

츠문화의 활성화」, 「여성 스포
츠와 사회적 역할」, 「여성 스포
츠 지도자의 자질향상」이라
는 토의주제로 나누어 진행되
었는데 이는 한국 여성 스포츠
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한편
21세기 한국 여성 스포츠의 진
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에서는 여성 코치, 심
판 및 일선도장 사범등 모두
15명이 참가하였는데 본회 여
성분과위원회의 서춘희부위원
장은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강의를 담당, 참가자들에게 태
권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입상자 및 유공자 포상 수상

1988년 3월 23일부터 25일
까지 네팔 카투만두에서 거행
된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차
지하며 종주국으로서의 위용
을 과시했던 국가대표 선수단
에 대한 포상전수식이 지난 9
월 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
의실에서 있었다.

포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체육훈장 기린장

권태호(남자 편급 금·경희
대)

하태경(남자 플라이급 금·
한국체대)

조영남(남자 밴텀급 금·동
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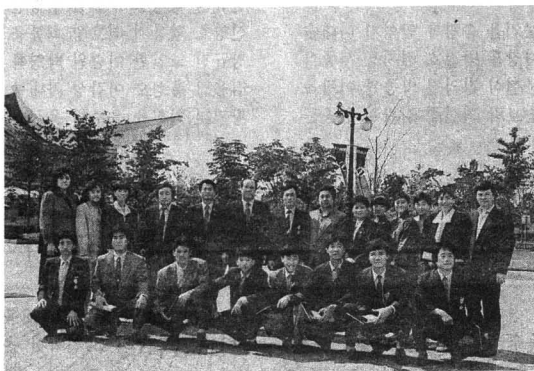
이화진(여자 편급 금·청산
여상)

박선영(여자 밴텀급 금·경
희대)

김현희(여자 미들급 금·경
희대)

▲체육포장

박 익(단장·서울시협회
부회장)



고국환(감독·국기원 심사
분과 위원장)

이용환(남자팀 코치·광성
고 코치)

김영수(여자팀 코치·문성
여상 코치)

김경주(여자팀 코치·사범)

▲대통령표창

강선장(남자팀 코치·풍생
고교사)

박봉권(남자 라이트급 금·
한국체대)

정용석(남자 미들급 금·현
대자동차)

김종석(남자 헤비급 금·상
산고 교사)

김소영(여자 페더급 금·경
기도협회)

이은영(여자 라이트급 금·
경희대)

김지숙(여자 웰터급 금·경
기도협회)

장운정(여자 헤비급 금·경
북협회)

전국경찰무도대회 서울시경 6년 연속 우승 차지

경찰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 경찰무도대회가 10월 20일 부평경찰학교 체육관에서 치안 본보를 비롯하여 18개 시도팀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태권도를 비롯한 유도, 검도 등 3종목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펼쳐진 이번대회에서 김종호 총경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경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1984년 이래 6연패의 영광을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는 강동서 형사과의 김수환씨가 우승,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시경팀 태권도를 지도

하고 있는 이택명 사범은 현재 본 회 기술심의회 연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6연패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시경팀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김종호 총경
- ▲감독: 이택명 사범
- ▲코치: 김경섭(외사과)
- ▲주장: 강계령(강남서)
- ▲선수: 박형철(남대문서)
- 최정선(형사과)
- 박홍유(중부서)
- 강선만(청량리서)
- 이철희(청량리서)
- 김영식(기동대)



- 정상식(기동대)
- 조태훈(강동서)
- 장하연(10전경대)
- 김기남(시경의경)
- 권오준(성동서 의경)

제25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 영등포구치소(유단자부)·제주교도소(단외자부)우승



교도관 무술기량 향상 및 상무정신 함양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주최로 제25회 전국 교도관무도대회가 10월 27일 교정연수부연구관에서 개최되었다.

교도관무도대회는 태권도, 유도, 검도 3개 종목을 유단자와 단외자로 구분하여 각소별 단체시합을 실시하고 있는데 태권도경기에 25개팀 118명을 비롯해 유도에 24개팀 120명

검도에 19개팀 114명 등 총 68개팀에서 352명이 참가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한일교도관친선무도대회 파견선수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태권도 최우수선수상은 영등포구치소의 이약우교도가 차지했다.

태권도 유단자부 우승은 영등포구치소, 준우승은 안양교도소, 단외자부 우승은 제주교도소, 준우승은 의정부교도소, 장려상은 강릉교도소가 각각 차지했다.

태권도소식

제12회 서울대학교총장배쟁탈 전국대학태권도연합대회, 서울대우승

각 대학의 태권도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견주어 봄으로써 도(道)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1982년에 서강대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전국대

학태권도연합대회가 올해로 12 회제를 맞아 서울대 태권도부 주최로 11월 4일과 5일 서울대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22개 대학에서 전국 규모대회의 입상경험이 없는

태권도 씨클부원 318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가 종합우승, 경북대가 준우승, 경희대가 3위, 영남대가 장려상을 차지했고 체급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상자명단〉

체 급	순위	이 름	학 교
핀 급	1	천 상 진	영 남 대
	2	김 진 경	경 북 대
	3	신 상 원	영 남 대
	3	김 용 관	영 남 대
플라이급	1	김 정 배	항 공 대
	2	이 영 수	홍 익 대
	3	조 덕 현	경 북 대
	3	노 종 석	경 원 대
밴 텀 급	1	송 광 근	고 려 대
	2	김 한 신	항 공 대
	3	홍 상 표	동 양 공 대
	3	서 태 원	외 국 어 대
페 더 급	1	김 현 철	경 북 대
	2	박 재 홍	영 남 대
	3	홍 경 수	경 회 대
	3	권 순 윤	한 양 대

체 급	순위	이 름	학 교
라이트급	1	고 용 재	서 울 대
	2	김 민 성	경 회 대
	3	박 종 민	서 울 대
	3	이 장 훈	외 국 어 대
웰 터 급	1	김 정 남	인 하 대
	2	장 재 홍	경 회 대
	3	김 철 록	단 국 대
	3	신 경 목	연 세 대
미 들 급	1	이 국 재	연 세 대
	2	김 용 표	성 균 관 대
	3	고 국 원	서 울 대
	3	윤 성 호	인 하 대
헤 비 급	1	관 순 현	서 울 대
	2	이 도 현	건 국 대
	3	장 재 영	홍 익 대
	3	이 판 근	경 회 대

시도지부소식

대전직할시 소년체육대회 개최

대전직할시협회는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유성 국민학교체육관에서 소년체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국민학생부 147명, 중등부 70명 등 총 217명

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과시했는데 영예의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소식

국교부

▲핀급 : 현규용(목동국민학교)

▲플라이급 : 김병천(유성국민학교)

▲밴텀급 : 김영상(태평국민학교)

▲페더급 : 김용상(태평국민학교)

▲라이트급 : 명순모(태평국민학교)

▲웰터급 : 차시우(성남국민학교)

▲미들급 : 엄동호(목동국민학교)

▲헤비급 : 임훈택(화정국민학교)

중등부

▲핀급 : 오영일(오정중학교)

▲플라이급 : 정우희(대전북중학교)

▲밴텀급 : 유동찬(대신중학교)

▲페더급 : 김태훈(대신중학교)

▲라이트급 : 이봉준(대신중

학교)

▲L-웰터급 : 제환용(대신중학교)

▲웰터급 : 김태환(대신중학교)

▲L-미들급 : 전명기(오정중학교)

▲미들급 : 김용국(신탄중앙중학교)

▲L-헤비급 : 김병문(대신중학교)

▲헤비급 : 손용구(대신중학교)

전라남도협회

제6회 회장기타기 초중학교대항대회 개최

전남협회주최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체육회관에서 제6회회장기타기 초·중학교 대항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초등부 15팀 100명, 중등부 11팀 109명이 참가했는데 여수중학교가 중등부에서 7체급을 석권하며 우승, 3연패를 수립했고 여수진남국민학교도 초등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승하여 2연패를 달성했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교부

▲핀급 : 김종성(여수구봉국민학교)

▲플라이급 : 전승환(여수진남국민학교)

▲밴텀급 : 이후현(여수진남국민학교)

▲페더급 : 박희철(구봉국민학교)

▲라이트급 : 지웅(구봉국민학교)

▲웰터급 : 유대실(여수미평국민학교)

▲미들급 : 김영균(여수진남국민학교)

▲헤비급 : 임현철(목포동국민학교)

중등부

▲핀급 : 마천국(여수중학교)

▲플라이급 : 정희택(여수중학교)

▲밴텀급 : 강정구(여수중학교)

▲페더급 : 신두환(수북중학교)

▲라이트급 : 김은철(여수중학교)

▲L-웰터급 : 김경래(여수중학교)

▲웰터급 : 조성진(여수중학

태권도소식

교)

▲L-미들급: 임창현(여수중학교)

▲미들급: 빙원철(여수중학교)

▲L-헤비급: 주용철(영화중학교)

▲헤비급: 최성주(청호중학교)

교)

단체상

초등부

1위: 여수진남국민학교

2위: 여수구봉국민학교

3위: 목포동국민학교

감투상: 여수미평국민학교

장려상: 목포연동국민학교

장흥장평국민학교

중등부

1위: 여수중학교

2위: 과역중학교

3위: 유달중학교

감투상: 안양중학교

장려상: 화양중학교

충청남도협회 광천상고 태권도부 탐방



오경환 교장

광천상업고등학교(교장 오경환)는 지난 1986년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1인1기 교육 지정학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1200명의 전교 학생에게 중간 체육활동시간을 이용, 매일 30분씩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체력면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어 1987년 3월 25일

정식으로 태권도부가 발족하게 되었는데, 현재 47명의 태권도부원이 선수부와 취미부로 나뉘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전혀 태권도를 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 중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 소질을 보이는 학생을 선수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양성은 더

디지만 감독교사인 이선해 체육주임과 서인원 코치(광천명지체육관)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필코 국가대표선수를 배출시킨다는 굳은 의지로 오늘도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여학생들의 태권도 수련을 반대하시는 학부모에게 태권도수련의 필요성을 이해시키



태권도소식

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해 체육주임은 특히 각종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마무리 할 즈음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로 찾아와 “여자가. 집안일이나 돕지 않고 무슨 태권도를 하느냐”면서 반대하시곤 할 때가 가장 낭패스럽다고 한다.

한편 광천상고의 태권도부는 1988년도 충남도지사기 여자부 준우승, 1989년도 충남회장기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여자대표선발전, 중고연맹전, 연세대 총장기 대회 등 전국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결과 선수부원 모두 우리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앞으로 태권도 명문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훈련에 더욱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경환 교장은 현재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오세준부회장(약국경영·43세)의 부친이기도 한데 태권도부원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충청남도내 전국대회의 입상 성적이 있는 선수들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시설면에서는 홍성군 민체육관(수용인원 약 3,000명)이 학교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권도부실과 샤워실·체력단련실·합숙실 등이 모두 이 실내체육관안에 갖추고 있어서 각종 대회를 앞둔 강화훈련시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전국 체육대회에 여자부가 종목으로 채택되면 광천상고가 고장을 빚는데 한몫을 해내리라 자신하면서 오늘도 광천의 태권남자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서인원 충남협회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원주교도소 제2519경비교도대 탐방

병풍과 같이 쪽 나라를 펼치고 웅장함을 과시하는 국립공원 치악산을 마주보며 원주시 무실동에 자리잡은 원주교도소는 원주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외정문 앞의 곧게 뻗은 가로수가 펼쳐진 것을 보면 우선 첫인상부터가 말끔해 보이고 엄숙하면서도 질서가 잘 잡혀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첫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교정관리 역량의 강화”라는 표어아래 김병준소



제1회 태권도 승단심사 기념
(원주교도소 제2519경비교도대) 1989. 5. 10

태권도소식

장 이하 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재소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상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남달리 헌신하여 타소의 모범이 되는 교도소이다.

제2519경비교도대는 81년도에 창설되어 강건한 체력을 겸비하고 군인정신의 충일함을 위해 태권도를 수련해 왔는데 88년 새로 부임한 김한철중대장이 전대원의 유단자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다.

난폭한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곳 보다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언제 어느때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김한철 중대장은 제2의 화랑도를 창출해 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아래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수련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체계있는 훈련을 위해 원주시내에 있는 천일체육관 원제용 관장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원제용 관장이 무료로 적극 지도해 주겠다고 쾌히 승락함으로써 태권도의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되었다.

원제용 관장은 심판원이며 원주시내에 있는 5개 국민학교에서도 태권도를 지도하고 또한 저녁에는 자율 방법대장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모범관장으로 특히 제24회 서울올림픽 때에는 원주시 성화봉송 주자이기도 했다.

전 대원들은 아침기상과 함께 우렁찬 군가소리에 발맞추어 1.5Km 정도의 구보를 마치고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발 기술과 주먹기술을 단련해 왔다.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산악지대라서 추위가 빨리 오고 늦게까지 계속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년 겨울에는 체육관 시대라고 한다. 대원들은 한급한급 승급할 때마다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모두 유단자가 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군무를 마치고 나서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체력연마장으로 달려가 단련백을 치며 기본기 훈련에 만전을 기해온 대원들은 지난 5월 10일 실시된 단 심사에서 55명의 응심자 전원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

김한철 중대장은 앞으로는 2519경비교도대의 전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훈련'을 계속 실시하여 승단을 해

설도 없이 막사앞 노천에서 젊은이의 열기로 혹한의 추위를 녹이며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수련에 임한 결과 제12회 강원도 협회장기 쟁탈전에서 웰터급의 최용순상교가 은메달을 획득하고, 라이트급에서는 홍범수일교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에 전대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운동에 전념을 하게 되었으며 매월 급심사를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나갈 것이며 이곳에 전입되어 오는 대원은 전원 전역하기전에 초단 이상의 유단자로 만들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원주교도소의 제2519경비교도대는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부대로 성장을 하고 전대원이 초단 이상의 실력을 소지하고 있는 막강한 부대임을 자랑하며 또한 이를 빛나는 전통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오늘도 제2519경비교도대 전대원은 복무기간 중 건전한 병영생활은 물론 전역후에도 태권도의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찬영 강원도협회 편집위원)



화제의 인물

“1990년도 중량급 여자국가대표 대폭 세대교체 예고,,

여자국가대표 김소영 · 이은영 · 김지숙 · 김현희 · 정완숙,
선수생활 마감 할 뜻 밝혀



“여자대표선발전도 1, 2차를 통해 리그전으로 치루어야 가장 우수한 선수가 선발될 것”



김 소 영

페더급

- ▲1966년 6월 12일생
- ▲성신여대 졸업 · 경기도협회 소속
- ▲1982, 1984, 1987, 1988, 1989년도 국가대표
- ▲1984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1987년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 1988년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 페더급 3위
- 1989년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 ▲1988년 체육훈장 거상장
- 1989년 대통령 표창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경기에서의 승리는 물론 연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고 긍지를 느낍니다.”

김소영선수는 세계대회 2연패로 이은영선수와 함께 최초로 여성 태권도인으로 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남동생이 몸이 약해 집에서 운동이나 시켜 보아야겠다고 해서 함께 도장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동생은 선수생활과는 관계없이 태권도 4단이 되었고 덩으로 따라갔던 자신은 선수가 되었다며 인생의 지침은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의해 돌려지는가 보라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순발력, 근력, 스피드가 뛰어나고 특히 돌려차기 및 들어찍기 기술이 일품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김소영선수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고 승부욕이 강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국제대회 경험이 다양한 김소영선수는 유럽권 · 미국 · 대만선수들 모두가 대등한 기량을 갖추고 있어 우열을 가리키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1차로 끝나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일의 선수 컨디션에 따라 실력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진운에 따라 평소에 실력있는 선수가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라며 남자들이처럼 1차, 2차등을 통해 리그전을 치루어 가장 우수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부원들이 좁은 대학문을 넘지 못할 경우 태권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실업팀이 많아져 고교졸업생에게 문호가 개방된다면 더욱 우수한 선수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계속 공부를 할 계획이며 태권도는 당분간 쉬고 싶기 때문에 지도자의 길은 아직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난 9월에 새로 창간된 월간한국태권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태권도수련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무의미한 움직임에 불과할 뿐”



이 은 영

라이트급

- ▲1968년 1월 4일생
- ▲경희대 태권도학과 4학년
- ▲1986, 1987, 1988, 1989년도 국가대표
- ▲1986년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2위
- 1987년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1988년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1989년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1989년 체육훈장 거상장

외국선수에 비해 신장의 열세는 있지만 국제경기 경험이 풍부하고 유연성·근력·순발력·스피드 등이 좋아 경기시 득점력이 뛰어나 시합에 임해서는 패배를 모르는 이은영선수가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

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연금혜택까지 받게 되면서 태권도선수로서는 가장 화려한 막을 거두고 지도자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경희대 태권도학과 졸업반인 이은영선수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적인 태권도연구로 이론과 기술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신의 삶은 태권도와 함께 할 것이라며 영원한 태권도인으로 남겠다고 했다.

대학교 1학년 때인 1986년도에 최초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다는 이은영선수는 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년간 라이트급 국가대표선수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연패를 차지하는 등 그 몫을 단단히 해왔다.

이은영선수가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5살의 어린 나이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 부터였는데 태권도선수인 이은영선수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며 뒷바라지 해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태권도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이은영선수는 미동국민학교 재학시에 어린이 국가대표시범단이었고 창덕여중과 진명

여고에 진학하면서는 태권도부가 없는 가운데 혼자 태권도장을 찾아 다니며 수련을 해온 노력과, 당시 다른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공부에 열중할 때 정규수업을 다 마치고 태권도수련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태권도를 하기 싫어 피를 피울 때는 아버지가 당시만 해도 흔히 먹지 못하던 바나나를 사다가 집에다 걸어 놓고 태권도를 수련하고 오면 주겠다고 유혹에 넘어가 태권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태권도수련에 열과 성의를 다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태권도를 해왔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하는 태권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태권도를 수련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검증하게 되자 가슴에 다가왔던 그 중요한 인식에 숙연해지면서 최선을 다해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후배들에게도 태권도를 수련하는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 노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손발도 무의미한 움직임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 태권도가 차지하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다.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여자들만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 남녀 구별없는 합동훈련의 병행이 효과적”



김 지 속
웰터급

▲1967년 4월 1일생

▲경희대졸업 · 경기도합회소속

▲1982, 1985, 1986, 1987, 1988, 1989년도 국가대표

▲1985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라이트급 1위

1986년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1987년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2위

1989년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2위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지숙선수는 은퇴시

합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쳐 몹시 아쉬움이 큰 듯하다.

경기도 고양군에 위치한 청석국민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가끔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군인 아저씨들의 모습이 멋있어서 태권도를 해보고 싶어했는데 중학교 때 읍내로 나오면서 태권도장이 있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꾸며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해 와 82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등 6년을 국가대표가 되기도 했으나 국제대회에 출전해서는 불운하게도 2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다. 87년도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88서울올림픽에 이어 올해 개최된 제2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에 그쳤던 것이다.

침착한 경기운영과 찬스포착에 의한 득점력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외국선수들에 비해 신장면에서의 열세와 과감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자신감 결여가 패인이라고 한다.

김지숙선수는 우리나라 여자 태권도인의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상당기간 세대교체없이 한 선수가 계속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 국제대회에서 비디오 등을 찍어간 외국에서 차기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는 우리나라 여자 대표의 전력을 거의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 우리가 완전히 노출된 피사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치른 세계대회 때에는 대표선수들이 관중석에 앉아 일일이 대진표를 체크하며 우리나라 선수들과 대진하게 될 선수들의 주특기 및 장단점을 파악해 이를 코치에게 전달, 전략을 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상대방을 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합숙훈련에서 여자들만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 남녀 구별없는 합동훈련으로 병행해 실시한 것도 효과적인 것 같으며 계속해 후배들이 태권도 중 주국의 권위를 살리는데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김지숙 선수는 앞으로 여성 태권도인으로서의 특기를 살려 경찰분야에 투신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한다.

“앞차기·찍기 등에 한정된 여자선수들의 기술을 다양화해야 할 것”



김 현 희

미들급

- ▲1967년 7월 14일생
- ▲경희대 태권도학과 4학년
- ▲1985, 1986, 1987, 1988, 1989
년도 국가대표
- ▲1985년 제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1986년 제1회 세계대학태권
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1988년 제8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태권도경기 미들급 1
위

“여자가기 때문에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는 않았다”며 성의 구별과 태
권도와와의 관계는 별의미가 없

다는 김현희선수. 누구든지 태
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선수는
다만 취미로 하는 태권도인들
보다 인내심을 갖고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고도의 기술
습득과 강인한 정신력이 갖추
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85년부터 국가대
표를 역임해 오며 많은 국제대
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보
여 주었고 특히 88서울올림픽
무대에서 미들급에 출전해 금
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
었다.

대학 졸업반으로 세계대회
에 출전하게 된 김현희선수는
아쉽게도 예선탈락의 비운을
맞았는데 “지난해 올림픽 금메
달을 끝으로 선수로서 은퇴할
작정이었다가 올해 마지막으
로 대표선발전에서 출전하라는
주위의 권고로 국가대표선발
전에 출전했다가 국가대표가
되자 그 때부터 최선을 다해보
자는 각오로 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동안 후회없이 만큼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해 왔다고 자
신있게 말하는 김현희선수는
다만 인대부상 등으로 인해 길
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
으나 나만이 아픔을 느껴야 할
때에도 중요대회를 앞두고는

견디고 수련에 임하다가 다시
악화되거나 했을 때는 도중에
그만두고 싶기도 했다고 하는
데 앞으로는 태권도와의 타분
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국민학교 다닐 때에 동네에
있는 체육관이 유리문으로 되
어 있어 오다 가다 그 속에서
하얀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수
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여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다
는 김현희선수.

고3때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몹시 긴장한 가운데 시
합을 치루었는데 승리의 손이
올라갔을 때가 가장 기뻐다고
회고하면서 선배답게 앞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될 후배
들에게 외국의 선수들이 실력
면에서 우리나라선수들과 대
등할 뿐더러 신체적인 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
기 위해서는 앞차기·찍기 등
에 한정되다시피한 여자선수
들의 기술발휘를 다양화해야
만 이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고 충고했다. 단순한 기술발휘
는 이미 우리나라 대표급 선수
들의 기량이 몇차례의 국제대
회 출전으로 인해 노출되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형태를 후배
들이 따라할 경우 문제는 심각
하다고...*

“우리나라 여자선수들에겐 무엇보다도 자신감 회복이 필요”



정 완 숙

헤비급

- ▲1966년 3월 23일생
- ▲성신여대 체육과 4학년
- ▲1989년도 국가대표
- ▲1989년 제2회 세계여자태권
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정완숙선수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할까.

1984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이나 매년 국가대표의 문턱에서 그동안 여자헤비급 국가대표의 간판이었던 장운정선수에게 패해 늘 국가대표 2진에 머물곤 했었다.

원래 중학교 때까지 육상과 테니스를 즐겨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청산여상(현 영신여고)의 김영인선생이 정완숙선수를 보고 태권도를 하기에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다며 태권도를 권유해 시작하게 되었는데 10년만에 국가대표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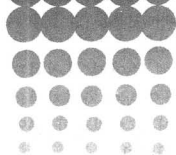
이번 세계대회 출전이 국제대회로는 처음 출전인 셈인데 외국선수들에 비해 중량급이 열세인데다 특히 헤비급은 국제무대에서 우승하기가 어려운 체급으로 기대하기조차 어렵다는 세간의 우려를 떨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인 만큼 그 기쁨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정완숙선수는 장운정선수에게 매년 국가대표선수자리를 빼앗기자 그동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정도로 좌절했는데 지난 해 졸업한 장운정선수가 올해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졸업하기 전에 어디 한번 마지막으로 윤정이 언지를 이겨보자는 마음으로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한 것인데 국가대표가 되어 기뻐할 사이도 없이 대표선수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합숙훈련에 임했다는 것.

외국의 선수와 경기를 치루어보니 신장면에서는 우리보다 낮지만 실력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는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감히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는 소극적 방어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다소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과감히 공격해오는 외국선수들에게 패하는 결과가 오는 것 같으며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감 회복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은 소질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 지도자로서의 길은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지도자로서의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지도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시리즈(마지막회)

—노인체육편—

노인층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는 노인의 체력 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을 실시해야 수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에서는 노인과 체육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발간한 「노인체육」(국민대 김창규교수저)에서 발췌하여 실었다.

I. 서 론

1. 중요성

사회체육은 사회적 동물인 인류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고 또한 사회체육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존속 발전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으로써 근래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체육이란 아기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 없이 종합적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체육활동은 주로 여가의 창조적인 선용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 체육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명량한 사회를 건설하고 건강한 국민을 만들며 국력을 신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체육운동이란 단순히 작업노동시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여가 스포츠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범국민적, 범사회적 운동성을 강조하면서 전개되는 각종의 스포츠 사회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 주요국가의 경우를 보면 복지국가일수록 사회체육의 발달이 크게 이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위와 같은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작업의 다양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체육 Program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개념은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관습, 그리고 현재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

게 말할 수는 없다.

노인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노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반드시 나이가 한두살 더 많다고 하여 더 늙었고 활동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장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노화란 하나의 과정이며 이는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노인으로 인정되는 연령, 본인 자신이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연령, 노인이 됨으로서 그 개인의 일상 생활에 곤란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본인의 주관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3. 체육과 노인

노인에 있어서의 여가선용이나 체육활동의 의미는 일반성인이나 청소년의 경우와 아주 다르다.

성인기 남자에게는 직업이, 여자에게는 직업 또는 가사를 돌보는 것이 주요 영역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여가이용이나 중요한 신체활동의 큰 분야를 차지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일이란 종속적인 것이 되고 여가활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체활동은 삶의 보람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중요한 생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노인들도 일이나 신체활동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긴장상태에서 해방되어 휴식을 구하고 자기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본래의 의미로서의 체육활동이 필요한 것이며, 노인들은 이를 아주 즐겁게 여겨 자기 개인의 창조력, 지구력 등을 발휘하여 건강유지를 위하여, 특히 젊었을 때 하지못하였던 새로운 경험에의 도전을 시작하

게 되고 일과의 한 분야를 인식하여 즐겨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이 갖는 많은 자유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풍부하게 갖는 것은 노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므로 이 풍부한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자기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공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의 체육활동은 노년기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며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같은 것인 신체활동이 없는 노인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노화, 쇠퇴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II. 노인의 특성

1. 생리적 특성

사람이 늙는 것은 몸의 조직과 기능이 소모되어 남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늙는 데에도 아울러 정신적인 노화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화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옛날에는 생명 에너지(Vital Energy)를 가정하고 이것이 소모되는 것을 노쇠라고 하였으며 완전히 소모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생각하였다.

노쇠현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현상이 전신에 똑같이 오는 것은 아니며 장기관에 따라서 그 정도와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체로는 내분비계, 순환기계, 위장계 등이 문제되고 또 정신적 기능 장애가 따르게 되는데 어떤 계통에 먼저 노화현상이 오는가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전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이 더욱 크며 과로, 기후, 식품, 영양, 음주 세균감염 등의 요인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기능이 감퇴되고 소화가 불량하게 진행되게 마련이다. 연령에 의한 능력의 변화를 보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가장 빨리 정점에 도달하고 또한 일단 내리막 길을 걷게 될 때에도 빠른 속도로 감퇴

된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은 20세에서 60세정도까지는 안정되어 있다가 60세를 지나면 갑자기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 능력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며 가장 능력이 고도에 달하는 것은 30대에서 50대인데 그 이후의 감퇴현상도 서서히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노화현상을 생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력의 감퇴이다. 시각은 40세를 넘으면 노안이 되어 예민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예민도는 나이가 더할수록 심해져서 70세에서 80세가 되면 노인성백내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시력은 급속히 떨어져 버리고 만다.

시력이 떨어지면 행동의 속도도 느려지고 적극성도 줄어들며 독서도 싫어져서 뇌세포의 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젊었을 때부터 익혀온 행동이나 일은 경험의 힘으로 그 쇠퇴를 보충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일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시력이나 체력이 떨어지면 행동이 둔하여지고 작업 능력도 더욱 낮아진다.

세포는 출생시 약 150억개이던 것이 30세가 지나면서부터 매일 10만개 정도가 죽는다고 한다. 간장은 보통 성인 남자는 약 1200g이나 이것도 60세가 넘으면 약 900g으로 된다. 근육의 무게도 20~30% 가버워진다. 그결과 근력이 쇠하고 노인의 심장에 보내지는 혈액의 양과 폐에 흡입되는 공기의 양도 젊은 시절의 반 정도밖에 안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생리적인 면에서의 노화현상인 것이다.

2. 심리적 특성

본래 노인은 노인 특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때문에 그 특유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격의 통합이 잘되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지적으로도 우수하여 기본적 성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므로 노인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인의 성격은 대체로 그 특징이 건강상 또는 경제상의 불안감, 생활상의 부적응으로 부터 오는 불안과 초조, 정신적 흥미의 협약으로 부터 오는 내폐성, 신체적 쾌락에 대한 흥미의 증대, 성생활의 감퇴, 성충동의 감약 조건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학습이나 적응의 곤란, 홀로된 데 대한 고독감, 의심, 질투심, 보수성, 과거의 생각에 대한 집착, 불확실성, 인생의 낙오감 등이다.

노인의 이와 같은 성격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변화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환경 및 생활사 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성격변화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전자의 원인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심인성, 환경에 대한 학습이 지배적이다. 특히 비건강, 고독, 빈곤의 이른바 노인의 3악으로 인하여 자주, 그리고 쉽게 욕구불만에 이르며 이것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장애 적응 능력의 저하에 의한 것이다. 결국, 욕구불만의 반응으로 이러한 성격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 대부분의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노인 문제의 해결은 경제적인면과 의료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현대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노인의 심리적인 문제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이나 다.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노인들의 심리적 측면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 보다는 꽤 단순히 면을 갖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욕구의 종류에 따른 강도가 달라지게 되며 노인들의 욕구는 일반적으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공통된 요구는 경제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 가정과 사회에서 연장자로서의 지위 유지, 가정,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원만한 접촉, 적절한 여가생활의 추구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노인의 욕구는 그 요구도가 높아지면

서 점차 노인자신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심리의 특성은 환경변화에 의한 재래의 관습 파괴, 개인적 자주성의 상실로 인한 의존심의 증대, 건강쇠퇴에 의한 활동의 제한, 사회적 신분과 경제능력의 상실로 인한 열등감 등으로 더욱 가속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의 심리 또는 욕구는 도시와 농촌사회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노인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그 희망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노인들의 심리적 욕구를 종합해 보면 첫째가 안정된 노후를 희망하고 있다. 노인들은 수입이 없어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항상 불안정한 심리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나이가 들면 가족이나 사회에서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항상 고독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세째로 노인들은 신체활동을 요구한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무언가 일을 하여 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차 있는 것이다.

네째,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 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대화를 위한 상대가 없어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인은 장수할 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노인의 본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의 심리적 욕구해소를 위하여 취미에 따른 신체활동 여가선용 등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특성

층효가 생활규범의 최고 가치로 인정되고, 또 노인의 지위가 확고하며 그 역할이 사회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문화 그 자체가 사회를 지배하는 노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며 이는 젊은 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져 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사상은 일단 뒤로 물러나게 되며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사회적 문화란 자연히 젊은 유능한 세대들에 의하여 주도될 수 밖에 없고 더구나 현재 한국의 노인들처럼 일제하에서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쟁을 겪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온 세대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인층은 사회적으로 노인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노인들의 세계에서만이 통하는 독특한 취미, 태도, 사고등의 일체감인 것들이다. 결국 사회에서의 노인문화란 노인층이 갖는 요구나 기대와 사회가 노인층에게 요구하는 기대와의 복합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며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바탕이 되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새로운 각도에서 확대하여야 한다. 노인들은 현실적으로 이해 관계를 초월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리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사회적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들의 적극적 조정력은 정치적 문제에도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사회생활에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추구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노인들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고 어떤 형태든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바라는 소일거리, 즉 여가활동은 여행, 관광, 원예, 운동, 독서, 음악감상, 장기, 바둑, 서예, 낚시 등 종류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은 TV나 라디오와 벗하거나 손자들과 어울리고 친지들의 방문이나 답사로 소일하거나 아니면 낮잠으로 지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소일거리에 대한 훈련이 없어서 보람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줄 모르고 또한 여가를 위한 경제적 여유도 부족한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볼 때 노인들을 위한 제도장치는 거의 전무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친교에 의한 소일방법, TV나 기타 오락물을 찾는 소극적인 여가 활동, 자기 취미에 따른 적극적인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한 자기 확대 등으로서 서열화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좀더 고차원적이며 심리적인 여가 활동이나 소일방법을 도입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상적인 일과로 삼아 습관화 시켜 자연스럽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후의 신체 또는 정신적 활동이 노후의 생활에 노인들 사회에 하나의 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성원에 의하여 부양하여 드려야 한다는 관념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 왔는데도 사회적으로 자립의식이 강한 노인층이 적지 않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의 신념 그리고 행동양식이 다원적으로 방치될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이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어야 한하는데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노인사회에 혼란이 오고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 사회에서 건강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지적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노인의 여가 생활은 고독을 낳고 역할을 상실하게 하여 가족의 부담만을 가져오고 혐오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은 노인 사회에서 건강유지를 위한 핵이 되는 것이다. 반영구적이고 불치의 병이 많은 노인병 환자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국가나 사회는 일반적인 노인의 생활 문화만으로 대항시킬 수 없는 것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일간집단의 건강은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사회성, 지적성을 감안하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도 노인문화의 영역속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인자신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이 너무 늙어서 무기력하여 신체활동이 어렵다는 생각, 더 발전할 여지가 없으며 죽는 날까지 여생을 편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 젊은이들이 냉대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있

어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들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며 사회에 대한 원망을 크게 할 뿐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거기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그들이 연장자로서 가정이나 사회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초노들이나 40~50대의 장년들은 현대식 교육을 받고 이나라를 급성장시켜 온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새로운 세대들을 지도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후손들이 배우고 따를 사회적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단 퇴직을 하고 나면 개별적인 생활만으로 남은 여생을 아무 역할없이 보내는 것은 사회생활의 일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이보다는 노인들의 사고와 신념 그리고 같은 세대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철학과 사회적 생활 적응 방식을 갖는 것이 훨씬 보람있는 일인 것이다.

III. 노인의 체력

1. 체력의 개념 및 요소

체력이란 영어로 Physical Fitness로서, 직역하면 신체적성이란 뜻이다. 신체적성 혹은 체력이란 단지 신체가 힘이 세다든지 또는 질병이 없다든지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신체적성이란 외계의 Stress에 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신체의 방위력과 적극적으로 외계에 동작하는 행동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개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의 신체를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과격한 일을 능률의 감소없이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John. E.Nixon은 체력이란 개인이 지나친 피로 없이 매일 매일 생활의 과업을 수행하고 나

아가서는 그가 비상시에 처하였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Cureton, T.K 박사는 체력이란 병이 없고 치아가 좋고 청력, 시력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오랫동안 작업을 하더라도 능률이 저하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고 체력을 삶을 보람에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모든 활동의 근원으로 생각하여, 인생은 지적인 생활, 정신적인 생활, 직장생활, 성생활, 사회생활 등의 많은 가지로 되어 있는 나무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들 많은 가지를 지탱하여 주는 나무의 동체가 이상이 생겨 약하게 되면 그 동체에 의지하던 모든 가지는 시들어지고 마침내는 나무 전체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체력이 약해지면 지적인 생활 정신적인 생활 성생활 및 사회생활 등 모든 인생이 위축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체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긴장이나 피로와 질병에 대하여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력이란 인간이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효과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체력의 진단

넓은 의미의 체력은 정신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하는 체력진단은 체력의 요소 중 신체적 요소만을 진단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체력 측정을 하기 위하여는 신체적 요소 중 행동체력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형태와 기능을 측정하여 적극적으로 외계에 동작하는 행동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신체적 요소 중 방위 체력이라고 불리는 내장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측정하여 외계의 스트레스에 참모 견디어 나가는 저항력을 함께 평가하여야만 이상적이다.

추우면 곧 감기에 걸리는 사람과 차를 타면 차멀미를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항력은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개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며 또한 행동력이 우수한 운동선수 가운데 자주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저항력은 행동력과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체력진단은 지능테스트 사회성테스트 같은 정신적인 테스트를 제외하며 또한 측정이 복잡한 저항력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제외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성인의 생활체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에 대하여 운동성과에 의한 진단방법을 알아본다.

1) 근력과 근지구력

근력은 근력의 수축에 의하여 발휘되는 힘의 총합을 뜻한다. 근력의 크기는 근육의 횡단면적 1cm^2 당 5kg 정도의 근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보디빌더와 같이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의 근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근육을 엄밀히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근육의 횡단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근육의 횡단면적은 종래에는 X-Ray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근래에는 초음파 장치를 이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운동성과에 의한 방법으로 근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지구력은 근육이 얼마나 운동을 오래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근력은 근수축에 의해 발휘되는 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근지구력은 근수축의 지속시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얼마나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근력이며 10kg 의 역기를 몇번 계속하여 들어 올렸다 내렸는가, 즉 반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근지구력이다.

근지구력의 측정방법에는 신체자원에 의한 방법으로 근 혈류량 측정이 있으며 운동성과에 의한 방법으로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한발로 뛰뛰기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운동성과에 의한 방법들은 모두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상대적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상대적 근지구력 측정은 근력과 근지구력의 2가지 요소를 함께 반영하고 있으므로 체력 진단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2)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장시간동안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신체의 각 조직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심장, 폐 그리고 혈관계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심폐지구력은 끈질긴 운동이나 작업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하는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신 지구력이라고도 불린다.

신체운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는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의 산화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체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에너지의 필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소의 섭취량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경우 산소섭취량이 그 운동에 필요한 수준으로 갑자기 증가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이는 호흡계와 순환계의 기능이 운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운동 시작후 1~3분이 지나면 호흡계와 순환계의 적응이 이루어져 그 운동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그 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과 실제로 섭취하고 있는 산소의 양이 일치하게 되는 상태를 정상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정상상태가 성립되는 운동은 장시간동안 계속할 수 있다.

3) 유연성

유연성은 일반적으로 관절의 가동범위로 정의된다. 관절은 뼈와 뼈가 인대나 건으로 연결된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움직임 범위가 곧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동작이 어렵게 되고 근육과 관절과 같은 상해를 입기 쉽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도 유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몸의 각 부위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유연성을 보면 목부분의 유연성, 어깨부분의 유연성, 허리부분의 유연성, 다리를 넓게 벌리는데 필요한 고관절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효율적인 신체운동과 좋은 자세의 유지에 중요하며 특히 상해와 관련이 높은 허리부분에서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각도법과 거리법으로 구분되는데 각도법은 관절의 움직임 각도를 측정하여 유연성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이며 거리법은 관절의 움직임에 의해 신체부위가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여 유연성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각도법은 유연성을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할 수는 있으나 인체의 관절각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측정의 객관성을 기하기 어렵고 또한 측정기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인에게는 측정이 간편한 거리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윗몸 앞으로 굽히기, 옆드러 윗몸 들어 올리기 등의 방법이 있다.*

전국체전 유감(遺憾)

유 호 윤
대한태권도협회
홍보과장

경기장 난입 30여회

경기중단 7시간여

89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도 안양 중앙국교 체육관에서 벌어진 제70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의 부산물이다.

한 경기 걸려 이어지는 항의와 경기장 난입소동은 결국 3일째 경기인 9월 29일, 저녁 7시를 넘기고도 아홉게임을 다음날로 넘겨야 하는 불상사까지 가져왔다.

에시에종을 부르짖는 태권도 경기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니고, 최고의 권위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배심석이 엎어지고, 발로 채인다.

교육의 연장이라하는 경기장내 나어진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가 연좌하여 경기가 중단되고, 심판들은 먹살잡이와 욕설에 시달린다.

이것이 1년전 올림픽의 한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전세계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은 화려한 태권도의 뒷모습인가?

이것이 90년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요구하는 선진 스포츠인들의 모습인가를 생각해본다.

항의와 소동을 태권도 경기의 양념이라고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로 우리는 경기장 난동에 익숙해 있다. 또 전국체전은 1년에 한번씩 치르는 흥역으로 생각할만큼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그 도를 증폭해가며 유지돼 오고있다.

시도 대항전인 만큼 다소 과열될 수 밖에 없다고 치부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 가기에는 심각한 국면에 다가서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각 시도 임원은 임원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모두 할 말이 많다.

‘향응 수수’ ‘지역연고’ ‘전략적 항의’등의 소리가 경기장 밖을 휘젓고 다닌다.

향응이니 지연관계니 다음 경기를 대비한 전략적 항의등 경기장 뒤편에서 일어나는 저차원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 태권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저질스럽기 때문이다.

그럼 규정 자체가 모호하여 운영하기에 많은 난점을 갖고 있고, 난동자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규정을 완벽하게 개정하여 운용해도 거기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엄한 처벌로 다스리는 강권통치도 미봉책일 뿐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완벽한 제도가 사회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아무리 원시적인 법률하에 살아도 그 구성원인 사람이 그 법률을 완벽하게 지킬 때 그 사회는 완벽해진다.

체육관에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외치며 경기장에 나와서 난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는 타인이나 제도를 욕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어느 누구, 무엇 하나도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조작하지 않는다.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양심과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욕심, 그러한 여지를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무책임한 방관, 이들이 태권도를 욕되게 하는 공범들이다.

우리가 후배 태권도인들에 물려줄 것은 태권도의 완벽한 제도와 규정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

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는 전통과 사심없는 마음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우리는 80년을 돌아보며 90년으로 내딛는다.

많은 외적 발전이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로의 정착, 국내 수련연구 300만의 양적 팽창, 실로 버거우리만큼 화려한 80년대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외국 태권도인들이 바라보는 종주국의 위상은 구름위에 있어도 몸은 진흙밭을 뒹굴고 있는 실정에서...

90년을 맞이하며 한번쯤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보자.

태권도라는 커다란 공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는 행사 하나 때문에 신성한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만큼 과연 전국체전은 태권도보다 상위 개념인가?

태권도인이라는 장인의식보다는 태권도를 이용해 밥을 먹는 프로는 아닌가?

70, 80년대 두눈감고 앞으로 달리던 걸음,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뛰어난걸, 우리의 모습을 한번쯤은 돌아보자.

화려한 질주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속을 채웠는가.

올림픽 정식종목도 좋고 온 국민에 사랑받는 종목도 모두 다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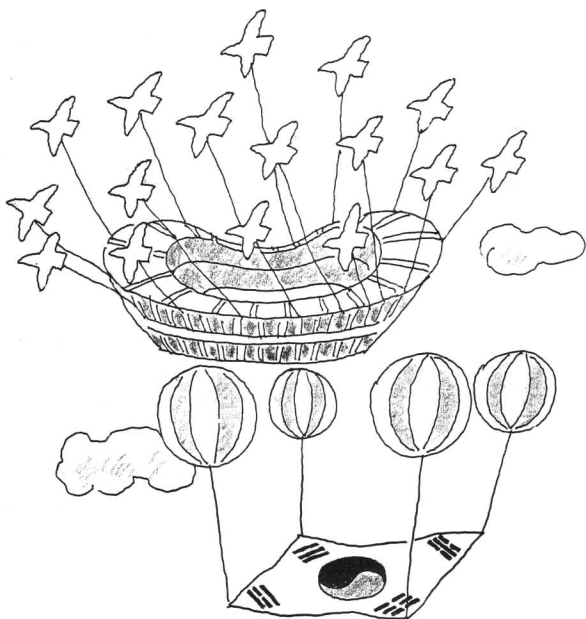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속 빈 강정이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는가.

90년대는 화려한 질주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2000년대를 대비하는 더 큰 거보(巨歩)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흰비둘기의 꿈

글·정 호승
그림·김 원



제 이름은 흰순이입니다. 사람들이 비둘기 이름치고는 너무 예쁜 이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덕수궁과 담 하나 사이에 있는 대한성공회 성당 앞마당에 앉아 있으니까, 아가씨 두 명이 종이 컵에 든 커피를 마시다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 예쁘다! 넌 어쩌면 이렇게 빛깔이 희니?”

“어머, 정말이야. 다른 비둘기들은 모두 잿빛인데 너만 눈처럼 하얗구나.”

은행원인 듯한 두 아가씨는 제가 귀여워죽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시다.

“애, 너 이름이 뭐니? 난 너같이 예쁜 흰비둘기는 처음 본다다.”

주홍빛 투피스를 입은 아가씨가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나와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저 마음 속으로만 “흰순이”하고 대답하고는 정작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또 말을 걸어오면 어쩌나 싶어 노란 은행잎들이 나뉘구는 마당 한구석으로 도망치다시피하고 말았습시다.

저는 요즘 누가 네 이름이 뭐냐, 누가 네 이름을 지어 주었느냐, 형제 가 몇이나 하고 자꾸 물으면 그저 마음만 자꾸 슬퍼진답니다.

사실 저는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 비둘기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을 무척 싫어 한답니다. 성당 바깥벽에 걸려 있는,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난 채 나무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는 사람 말고는 어느 사람이든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긴방진 비둘기’라고 욕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1987년 어느 봄날에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태어났습시다. 온몸이 모두 흰색인 부모님 사이에서 동생 검순이와 함께 태어났습시다. 사람들은 제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자 순백의 흰비둘기가 태어났다고 야단들이었습시다.

“야아! 우리가 기다리던 흰비둘기가 태어났다아!”

태릉선수촌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관리인 아저씨는 마치 큰 보물이라

도 발견했다는 듯이 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제 어머니도 제가 흰비둘기로 태어난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꼬리 부분이 검정색인 동생을 보고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흰비둘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 어느날 어머니께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린 우리 스스로 자랄 수 없어요?”

“응, 그건 서울올림픽 때문이란다.”

“서울올림픽이 뭔데요?”

“응, 그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는 체육대회란다.”

“그런데 엄마, 서울올림픽 때 왜 우리 비둘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건 올림픽 개회식 때 우리들로 하여금 잠실 주경기장 하늘을 마음껏 날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평화의 새거든.”

“그런데 엄마, 왜 사람들이 흰비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글쎄,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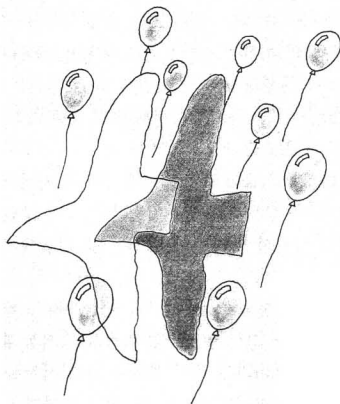
저와 어머니는 왜 사람들이 흰비둘기만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잿빛이나 검정색 비둘기가 태어나면 다른 곳으로 쫓아내버려 저는 동생 검순이와 헤어지게 될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저는 언제나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할 때도 꼭 동생 곁에 붙어 동생과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흰비둘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1백마리 정도였던 흰비둘기가 불과 서너달 사이에 1천여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비둘기들을 한쌍씩 짝을 지어 새장 속에 넣고 자꾸 흰비둘기의 숫자를 늘려나갔습니다. 덩달아 검은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비둘기들을 업신여기고 꺾보는 흰비둘기들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언니, 왜 친구들이 나를 자꾸 검순이라고 놀리지. 난 정말 슬퍼.”

동생 검순이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 우린 다 똑같은 비둘기야”하고 검순이를 꼭 껴안아 주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새벽에 관리인 아저씨가 김순이를 어디 멀리 쫓아내버리려고 해서 제가 그 관리인 아저씨한테 울부짖으며 매달린 일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 김순이와 함께 있게 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 동생은 가장 높이, 가장 오랫동안,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리인 아저씨는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훈련조차 중단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 어느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검은 색이 있는 비둘기는 상부의 지시로 어디론가 쫓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김순이는 간밤에 매한테 몰려 죽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배는 터져 이리저리 창자가 흘러져 있었습니다.

“김순아, 김순아...”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아무리 동생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동생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순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도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눈을 부라리며 야단을 쳐도 새장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순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겐 서울올림픽이 남아 있지 않나. 이제 올림픽 개막식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단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서울의 하늘을 마음껏 평화롭게 한번 날아보자꾸나.”

울어서 눈이 통통 부은 어머니께서 애써 눈물을 감추시면서 저를 달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더이상 슬프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푸른 하늘을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걱정마세요. 어머니. 제가 검순이의 몫까지 다 합쳐서 잠실 주경기장의 하늘을 가장 높이 날 거예요.”

1988년 9월 17일. 드디어 서울올림픽 개막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성화를 들고 뛰어오는 임춘애 언니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풍선으로 만든 세계수 나뭇가지로 감추어져 있던 성화대가 제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와 함께 주경기장 하늘 위를 멋지게 날고 있다가 성화대 위로 사뿐이 날아 올랐습니다. 성화를 들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륜기 휘장 사이로 날아오른 우리 하얀 비둘기들의 모습도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답지?”

“그래, 정말 굉장하구나. 정말 아름다운 불이야. 평화의 불이지.”

“엄마, 우리도 평화의 새잖아.”

저는 높은 성화대 위에 앉아 잠시 동생 검순이 생각을 했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하고 부르는 올림픽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검순이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 흰순아 비켜!”하면서 어머니가 제 몸을 성화대 밖으로 확 밀쳐내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갑자기 뜨거운 불길에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몸을 하늘 위로 힘껏 솟구쳤습니다.

아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는 그 성화의 불길에 한순간 온몸이 타버리는 한 마리 비둘기, 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동생 생각을 하느라고 성화가 점화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던 저를 불길 밖으로 밀어내고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타오르는 성화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열광했으나 저는 오직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뒤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비둘기들은 태릉선수촌을 떠나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서울시청 옥상으로, 또 어떤 친구는 어린이대공원으로 숲속으로 쫓겨갔으며, 저는 바로 이곳 대한성공회 성당으로 쫓겨왔습니다.

제가 이곳 성당종탑 부근에 와서 산 지도 어느덧 일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잿빛 비둘기들만 사는 곳이라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통 정이 들지 않았습디다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죽은 동생과 어머니가 보고 싶어 잠을 못이루었으나, 이젠 그런대로 잠을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당 벽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울다가 지쳐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번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살면서 내려와 제게 와서 “흰순아, 넌 왜 그렇게 잠도 안자고 울기만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를 만나게 해 주세요.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엄마는 지금 천국에 계신단다. 네가 밤마다 울지만 앓는다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예수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뒤부터 저는 결코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눈

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마음은 여간해서 잘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뻔뻔마른 예수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 하고도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모이를 던져주는 것도 그들 스스로 즐거워지기 위해서 던져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둘기들로 하여금 모이를 먹기 위해 서로 머리를 쏘아대며 싸우게 하는 것도 다 사람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사람들을 더이상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밤 또 십자가에서 살며시 내려온 예수에게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천국에 있는 엄마를 꼭 좀 만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는 “남을 그렇게 미워해서는 엄마를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이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날— 그날은 제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될 테니까요. ✕

작가소개

정호승

1950년 대구출생. 경희대 국문과 및 같은 대학원 졸업.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위령제〉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의 편지〉 등이 있음.

현재 조선일보 월간조선부 근무.



글 · 감건중
그림 · 이향원

우수선수 선발전을 마치고 돌아온 도사범은 피곤해 보였다. 사무실 소파에 몸을 깊숙히 묻으며 담배 한대를 빼어 무는데 별난영감이 들어 서며

「이봐, 도사범! 이런 수가 있는 거여? 세상 참, 고된 싸가지가 읊는 녀석을 봤나... 나를 쳐!」

잔뜩 흥분된 음성으로 숨을 몰아쉬며 떠들어 대는 것으로 보아 필경 예사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도사범의 머릿속을 스쳤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신 일? 들어보라구. 최홍식이라구 있지?」

「최홍식...」

도사범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을 깨내듯 뇌까리자 별난영감은 답답하다는 듯이 탁자를 탕 치며 설명을 곁들였다.

「거 왜 빠쩍 마르고 머리통이 표주박같이 생긴 놈 말야. 흰한 대낮에도 술 쳐먹고 도사범 찾아오던 녀석 있잖여?」

「아, 네에 최홍식이...」

그제서야 도사범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최홍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글쎄 고 녀석이 미쳐두 단단히 미쳤지 날, 날 쳤다 이거야.」

「영감님을 쳐요? 그럴리가 있나요.」

도사범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과 그럴 수는 없다는 두개의 뜻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도사범이 시합인가 뭔가를 한다고 옛그제 떠났잖아. 그래서 두칠이 녀석만 있겠구나 싶어 체육관엘 올라왔지. 그런데 그 최홍식인가 뭔가 하는 녀석이 술에 잔뜩 절어 가지고 두칠이 먹살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있잖여. 그 꼴

을 보고 내가 그냥 있겠어? 처음엔 점잖게 말했는데 이게 쇠귀에 경읽기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 녀석 따짜귀를 올려부쳤더니 이게 미쳤지. 내 먹살을 잡더니만 날 치더라 이말이여.»

「정말입니까?」

「어허이, 이사람 속아만 봤나. 못 믿겠거든 두철이한테 물어봐. 고려언 후례자식이 있어.»

「...」

말없이 길게 길어올린 한숨을 토하더니 도사범은 최홍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생각으로 침몰되어 갔다.

도사범이 최홍식을 처음 상면한 것은 십여년 전이었다. 최홍식이 명일체육관을 개설하면서 개관식에 태권도협회 임원을 초청했는데 도사범도 그 바람에 최홍식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날 개관식은 참으로 거창했다. 거창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 체육관이 개관식이라고 해봤자 관원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그저 먹을 것이나 푸짐하게 차려 놓고 담소나 하는 따위의 상투적인 방식을 벗어나 의전절차를 그런대로 차려 줌은 엄숙하면서도 화려하게 치렀다는 의미다. 이런 개관식을 보고 도사범은 최홍식이가 오종종하게 생긴 모습과는 달리 통이 큰 사람이라고 느꼈고 아울러 앞으로 체육관 운영도 남들의 시선을 넘을 만큼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도사범의 이런 예상은 적중했다. 명일체육관은 개관한 지 육개월쯤 지나자 관원이 팔십명을 웃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명일체육관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 또 다른 소식이 날라들었다. 도사범은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만한 인원이 모였으면 상당한 것인데 무슨 공공이 속으로 팔아버렸는지 자못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홍식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애써 가꾼 체육관을 헌신짝처럼 버릴 리 없고 분명 더 큰 무대에서 높이 날기 위함이라고 도사범은 물론 최홍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진

것은 그가 체육관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 집까지 저당해서 큰 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였다. 분명 규모가 큼직한 체육관이 아니면 종합체육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추측은 완전한 오관에 불과했다. 최홍식은 그후로 한해가 넘도록 종합체육관은 커녕 조그만 체육관조차도 설립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술이나 먹고 싸돌아 다니기만 했다. 이런 꼴을 보다 못한 선배와 동료들의 주선으로 그는 달동네라 불리는 산등성이 마을에 자그마한 체육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 그런지, 최홍식의 노력도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일년이 넘도록 겨우 이삼십명의 관원밖에 모이질 않았다. 물론, 그런 조그만 규모의 체육관을 설립해 놓고 큰 기대를 걸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관원으로는 현상유지조차도 어려운 판국이었다. 그리고보니 최홍식으로서도 점점 체육관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체육관을 비우고 싸돌아 다니는 것으로 연결되더니만 얼마 못가서 종당에는 그 체육관마저 건어치우고 말았다.

「도사범, 그 최홍식인가 뭔가하는 녀석도 도사범매루 이렇게 체육관을 벌린 적이 있는감?»

최홍식의 생각에 잠겨 도사범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별난영감은 분에 못이겨 최홍식을 놓고 이리물고 저리물며 한동안 너브리지게 떠들어대더니 갑자기 엉뚱하다 싶은 질문을 부드럽게 던져왔다.

「그럼요. 그 사람이 체육관을 한두번 한게 아니예요. 진득질 못해서 그렇지 차렀다 그만둔 것이 대어섯개는 될겁니다.»

「대어섯개? 아하,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그랬다니요?」

「두칠이랑 달래 싸웠남. 두칠이 말을 빌면, 그 최홍식인가 뭔가 하는 녀석을 보고 두칠이가 최사범님이라고 했더니 그꼴에 대뜸 “야이 새까! 너네 도사범만 관장이고, 나 최홍식이는 관장이 아닌줄 알아!”하면서 시비를 걸드라는 거야.»

「그사람으로서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더니, 무신 해괴망측한 소리야?」

「그 사람으로서는 사범과 관장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다, 자신이 과거에는 대어섯 번씩이나 체육관을 운영해 봤는데 지금은 공술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빈털털이 신세가 되다니 두칠이 같이 새까만 후배들한테도 팔시를 받는다 싶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뜻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구먼, 근데 그 관장과 사범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는 건 무신 소리야? 사범보다 관장이 더 높은 게 아니냐?」

「영감님두 차암...사범은 태권도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관장은 체육관을 대표하는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범이란 의미가 영원하고 숭고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녀석은 알지도 못하면서 술이나 쳐먹고 해롱거려...」

「어찌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 불쌍은 절에 가야 있지. 그나저나 그 녀석은 나한테 잘못 걸린거.」

「잘못 걸리다뇨?」

이제껏 담담하게 말하던 도사범의 음성이 약간 높아지며 반문했다.

「고소를 했지.」

「네에?!」

도사범은 미간을 찌푸리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녀석은 콩밥을 먹여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만 된다구.」

별난영감은 도사범의 놀라는 폭이 의외로 크다고 느꼈을인지 군시렁거리듯 말꼬리를 흐려 버렸다.

(큰일났군)

어이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최홍식의 처지를 생각하니 도사범의 심정은 우물하기만 했다.

최홍식이가 비록 술타령꾼이 되어 떠돌아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는 시샘할 줄 모르는 착한 구석과 여유가 있을 땐 남을 돕기도 하는 인간적인 면이 있음을 도사범은 알고 있는 터였다. 그가 약삭 빠르지도 암팡진 생활력도 다부진 의

욕도 없이 그저 술만 먹는 주정뱅이로 낙인이 찍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된것도 어쩌면 착하고 욕심이 없는 데다 의지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도사범은 생각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라 처음 명일체육관을 처분하고, 그 뒤로도 번번히 거듭된 체육관 운영의 실패라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최홍식의 성품 때문이었다. 그후부터 강소주로 쓰린 심정을 달래다보니 이제는 완전히 알콜 중독자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도사범이 최홍식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가 체육관 운영에서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해메이던 몇해 전부터였다.

이른봄, 유치부 입소식이 한창일 무렵이었다. 최홍식이 서적 외판원이 되어 찾아왔다.

「이제 체육관 차릴 돈도 없고 책장사를 시작했쎄유.」

아침부터 시크스레한 술냄새를 풍기며 찾아온 것이 도사범으로서는 불쾌했지만 외판원을 하는 것이 겸연쩍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했다.

「열심히 해서 재기를 해야지.」

최홍식의 손을 굳게 잡으며 도사범은 위로와 함께 책 한질을 계약하고 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이곳 저곳 친본이 있는 체육관에 전화를 걸어 그의 책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후, 수시로 찾아오는 최홍식에게 도사범은 점심 한 그릇이라도 먹여 보내는 따뜻한을 잊지 않았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어느 때처럼 술냄새를 풍기며 최홍식이 찾아왔다.

「자네, 그 술 좀 먹지마.」

도사범이 횃난에 가까운 소리로 말하자

「지가 말유, 술 안먹군 못살겠쎄유. 술을 먹게 만든단 말유.」

그의 말꼬리는 허끝이 말린 소리에 가까웠다.

「아니, 술 먹는다고 해결 돼?」

「생각해 봐유. 개빨이나 수입은 없는데 집에 가면 예편네는 돈달라고 지랄하쎄유, 나오면 까만 후배새끼들도 관장이다 뭐다 품잡쎄유, 눈깔이 시구워서 못살겠쎄유. 이 최홍식이 아직 안 죽었쎄유.」

감정에 부박쳐 시부렁거리는, 그의 찢발선 눈 시술에는 이슬같은 물기가 잔잔히 고여 있었다.

「이 사람아.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지.」

그를 타이르는 도사범의 심정은 잿빛으로 낮게 가라앉은 하늘을 보는 듯 무겁기만 했다.

「정신을 차려유? 정신차리고 맨정신에 뒤흔 책장살 하겠썬유.」

「누굴타해. 모두 자네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인데…」

「지가 뭘 불러유?」

「이봐, 자넨 너무 성급했어. 인스탄트식품을 선호하듯 말야. 인생은 인스탄트 식품이 아냐… 태권도 사범은 체육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십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 다음 목표를 향해 계단을 쌓듯 차근차근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설 땅이 없어진단말야.」

그가 돌아간 뒤, 도사범은 태권도사범들이 체육관을 잃어버렸을 때, 설 땅이 없다는 현실과 최홍식의 전락되어 가는 모습이 안스러워 얼마간은 멍하니 뒷짐을 지은 채, 장승처럼 우뚝 서서 그 마음저림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최홍식은 달포 이상이나 도사범을 찾아오지 않더니만 여름으로 접어들던 때, 느닷없이 징징대며 텐트를 메고 와서는 팔아달라고 했다. 말하자면 이것 저것 닦치는 대로 안면 있는 선후배를 찾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도사범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다시 설 수 있다면 하는 바램으로 그를 지켜 보았다. 허나 그는 그런 노력으로 몇푼 생기면 우선 포장마차를 찾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도사범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해거름이였다. 비를 맞아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물골로 그것도 술냄새를 훔훔 풍기며 찾아온 최홍식에게 도사범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얌마, 꺼져! 보기도 싫단 말야. 꺼져!」

그것은 최홍식에 대한 바램이 무너지는 아픈 소리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한 인간이 전락되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홍식은 도사범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굳이 시렁대며 천하체육관 계단을 비실비실 내려갈

뿐이었다. 그의 축 처진 뒷토습을 지켜보는 도사범의 여린 심정은 그를 불러 세워 따끈한 커피라도 한잔 권하고 싶었지만 그런 심정을 매몰차게 다스리며 아프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최홍식은 그 해가 지나도록 도사범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고보니 도사범으로서는 그날 그에게 가혹하리만치 너무 아픈 상처를 준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전,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가 술을 끊겠다는 심산인지 술 끊는 약을 먹어가며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누구보다도 무겁던 도사범의 마음이 담박에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도사범은 며칠을 버려다 짬을 내어 최홍식의 집을 찾아 나섰다. 사골세를 내지 못해 밀리고 밀리다보니 시내에서도 근 삼십분이나 버스를 타야 하는 외곽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다. 도사범이 쇠고기 한 봉지와 애들 과자 한 상자를 사들고 최홍식의 집에 당도한 시각은 어둠이 스멀스멀 덮치는데였다.

「여기까지 웬일이 세유?」

생각지도 않았던 도사범의 갑작스런 방문에 최홍식은 깜짝 놀라며 반색을 했다.

「왜? 내가 자네 좀 만나면 안 되냐? 자네 술 끊었다는 소리 듣고 신통해서 찾아왔지.」

「지가 신통해유.」

최홍식이 모처럼 누리끼리한 앞니를 내보이며 히죽 웃었다.

최홍식의 단칸방에 들어서니 살림이라곤 구닥다리 장롱 하나와 잡음이 심한 흑백 텔레비전과 보따리 몇 개 뿐이었다. 물론,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콧등이 시큰할 정도로 가난해 보였다.

「빨리 상 들어 와.」

최홍식이 아내에게 저녁상을 들어 오라는 채근을 몇 번하자 수줍은 듯이 밥상을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어 죄송해요.」

그의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밥상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낭패가 있다. 빨리 일어서는 건데…)

도사범은 저녁상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서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왜냐하면 밥상 위에는 도사범이 사들고 갔던 쇠고기로 만든 국과 볶음 그리고 간장과 시어 빠진 김치와 비스켓이 자리하고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밥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아, 난 지금 속이 안좋아. 밥 생각이 없단니까.」

「미안해유. 엇그제부터 라면만 먹었썬유.」

최홍식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사범은 어깨를 누지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최홍식의 배움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아직도 겨울이 되려면 달포는 넘어야 될텐데 오늘따라 유난히도 도사범은 전신이 시러움을 느꼈다.

「이건 내 성의야. 아포소리 말고 받아.」

도사범은 세어보지도 않고 지갑에서 얼마의 돈을 꺼내 최홍식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발길을 옮겼다.

그날 이후 도사범은 그날 시려왔던 그 기억을 말끔히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지 최홍식의 문제가 아니고 등지를 잃거나 설 땅을 잃어버린 모든 태권도인의 현실에 대한 문제 같았기 때문이었다.

(체육관을 지키다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군.)

운영이 잘 되던 말던 그래도 자기의 터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도사범은 새삼 깨닫고 있었다.

「영감님, 고소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도사범이 말꼬리를 흐리자

「하지만 뭐감? 봐주라고? 어림없는 소리지.」

별난영감은 머리를 절레절레 내두르며 펄쩍 뛰었다.

「영감님, 제가 그 최홍식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녀석 애길 들어 뭘해.」

별난영감은 대우던 담배를 부벼 끄며 단호히 말했다.

「영감님! 제가 한번이라도 필요없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건 그러.」

도사범이 정색을 하고 반문하자 별난 영감은 다소 누그러지며 잠잠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고소를 취하하던가 말든가 결정하세요.」

「무신 애긴지는 모르지만 어림없을 겨어. 도사범이 말한다니까 듣기라도 하는 걸 알라구.」

선심이라도 쓰듯 느슨하게 말하는 별난영감에게 커피를 권하며 도사범은 최홍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시간이 넘도록 차분히 말했다.

「거, 듣고 보니 불쌍한 녀석이구먼. 그래 그후부터 술은 끊었남?」

「남은 얘기를 마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술을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한다고 판단한 도사범은 몇몇 뜻있는 사범들과 함께 최홍식에게 조그만 체육관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최홍식은 다시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제 겨우 사십여명 정도의 관원밖에 모이지 않았는데도 그는 격식을 갖춘다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돈 몇푼 보태주는 최홍식의 친구는 회장, 자신은 관장, 그리고 사범, 유치부 교사, 보조교사, 경리 이렇게 대역섯명이 그 체육관에 붙어서 제각기 자신의 몫을 가져가니 그 체육관이 운영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니 최홍식으로는 다시금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야 이사람아. 힘들겠지만 아직은 자네 혼자서 운영해 봐.」

불보듯 똥한 이치를 보고 도사범은 최홍식에 게 몇차례나 충고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대답은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그 어렵게시리 마련된 체육관도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야 말았다. 그후부터 최홍식은 도사범에게 미안했음인지 발길을 끊다시피 했고, 도사범 또한 그에 대한 관심의 그물을 건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거봐, 그 녀석은 안된단니까.」

도사범의 이야기를 듣고 난 별난영감은 헛입 맛을 몇 번 다시더니 머리를 도리칠졌다.



「물론, 안되는 사람인 건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감빵을 다녀온다고 고쳐질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긴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땐 완전히 타락해서 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감님, 그렇게 되면 최홍식은 차치하더라도 처자식까지도... 영감님, 그 고소 취하 하십시오.」

말끝을 끊었다가 단호하게 간청하는 도사범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음...」

별난 영감은 최홍식에 대한 분노와 진실하게 말하는 도사범의 간청을 놓고 갈등을 겪는지 진음소리만 낼 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선처하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최홍식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들이었다.

「알겠어. 하기사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에이,... 내 참말이지 도사범을 보고 관두는 거여.」

「고맙습니다.」

진실에서 우러난 감사의 뜻을 표현한 도사범은 별난영감과 함께 최홍식이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별난영감은 군소리 없이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에 도장을 찍었고 도사범은 인후보증서에 도장을 누른 다음 최홍식을 데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술 끊어! 젊은 사람이 그 꼬라지가 뭐여.」

별난영감이 최홍식에게 꾸짖듯 한마디 던지자, 도사범도 가볍게 타일렀다.

「이 사람아, 영감님이 용서하신 걸 고맙게 여겨서라도 다음부터는 각성해.」

「죄송해유.」

최홍식은 눈을 습벅이며 몸둘 바를 몰라했다. 그런 그의 표정은 피곤기와 삶에 찢든 모습으로 가득차 있었다. 도사범은 그에게 다거서더니 몇 푼의 돈을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얼른 집으로 가게.」

도사범은 최홍식이 멍칫거리고 서 있자 부드럽게 말하고는 별난영감과 함께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경찰서에서 조금 내려오니 포장마차가 즐비

하게 늘어서 있었다.

「영감님, 술 한잔 드시겠어요?」

도사범이 심곳이 웃으며 제안했다.

「뭐? 술? 내가 최홍식인감 어여 가자구.」

「원, 영감님두...」

두사람이 포장마차를 지나 로타리를 돌아서는데 뒤따라 내려오던 최홍식이 마약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두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이 그냥 지나쳐야 할텐데...)

내심 도사범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도사범, 저기 좀 봐.」

별난영감이 가리킨 곳을 다시 보니 포장마차 앞을 지나던 최홍식이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포장마차를 훑듯 쳐다보고 있었다.

「허허이, 그렇다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쳐.」

별난영감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껌센 음성을 툭구었다.

「...」

얼마를 멍칫대던 최홍식은 갑자기 걸음을 빨리하며 포장마차를 지나치더니 달리기 선수처럼 버스정류장을 향해 힘차게 뛰여가고 있었다.



김건중

- 1947년 충북 음성태생
-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 주요작품으로 「방패연」 「두번높이치기」 「4월감기」 「휴전」 「탈출」 「새월남기」 「바람멀미」 등
- 제1회 성남문학상 수상
- 저서: 장편소설 「모래성을 쌓는 아들」 '79
소설집 「출발소리」 (공저) '87
소설집 「소설과 비평」 (공저) '88
소설집 「열한시의 눈빛」 (공저) '89
-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 소설가협회 회원 「소설과 비평」 동인으로 성남시문인협회장과 성남시태권도협회장으로 창작생활과 대호문보판 체육관(7단)을 운영하고 있음.

태권가족



이향원



이 아가씨
내 후배인데
어떠니?



흥이 막!
천세 미인
양귀비도
저리가라
구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남편감이 될
사람은 태권도를 배운
좀 당당한 사람이라면
좋겠다던데...



어이~
외삼촌도 태권도를
배우려 했으면
좀 좋았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미인 외삼촌가
생기는 건데

그런 걱정
하릴 뭇말어!



태권도
잘한다고
방법이
없냐

사나이다운 당당함을
뵈워서 훌쩍 반하게
하면 될거야냐



지난번 해외 여행
때 처럼 허풍떨다
망신만 당하려고요



문제는 제가 플레니
약속이나 해주죠



답답한
잔질
보다야

화 드인
이런 공원이
좀 좋습니까

정말
그래요



미스도가 보니까엔
제몸이 약해 보일지
몰라도 태권도가
여러단입니다

어대나!
한국의 자라라면
태권도야 필수지만
여러단 씩이나...



회	원
수	상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에 다녀와서

임 원 섭 / 스웨덴 주재 사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노랑둥이, 검둥이, 흰둥이
가시네들, 머슴아들, 날아서왔네
필필 뛰며 다왔네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
태권도 중주국에서 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왔다고.

팔팔 잠실 실내 체육관
너무 좁았네
흔들 흔들 했다네
무너질뻔 했다네
오대륙 선수들 임원님들 북적북적
지나라 명예걸고 왔다고.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최선을 다 해보겠다지만
참가해서 배우고 가겠다고
왜?
중주국 선수들의 실력이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붙어있다고.

자네는 날아 다니는 파리란놈
차 보았는가고
불가능하다고 머리 가우뚱
한국 선수들
공중에 사는 파리 발로찬다고
책임진 응원단들
모두가 목췌고 손바닥이 부었고
친절 봉사단
다리 땡땡 부었다네
야단일세
큰일일세.

실내 음식점에
성질 낸 적이 있네
매운탕, 곰탕, 컵라면 다 떨어져서
어느 누가 다 먹었어
식당에 음식이 다떨어지다니
무슨 말이야.
태권도 외국선수들, 임원들이 다먹었다고
어떻게 먹었어

입에다 집어넣지 뭐.

태권도 사범님들
김치, 마늘, 고추, 생강
얼마나 먹었으면
우리가 먹기도 매운데
단단한 태권도 가르키니
위장, 창자 튼튼해졌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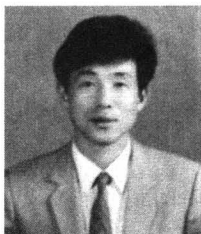
이태원에, 도복집에.
외국인 부글부글
어데말이야
세계태권도 선수들
눈뜨고
입뜨고
손뜨고
주머니뜨고
물건 다 사가네.
문제여—
문제일세.

심장 움켜 쥐는 우리예술
우리 국기
태권도도 보급하고
김치도 보급하고
맛도 보급하고
다 보급하면
먼—훗날
우리나라가 스승의 나라라고.

조선옷, 한복입고
호박 주렁주렁 달고
사범님들아~
심사 보세
심판 보세
갓도 쓰면 어찌리—
좁은 지구 다 보았네
넓은 세상 더 보세.

태권도를 사랑하기에!

—공정한 심판의 판정을 위하여—



김 성 칠 / 심판

음산한 달이 두터운 구름사이로 드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혀 오는 밤이다. 먼저 나의 영글지 못함에 선배님들께 용서를 구하며, 채 익기도 전에 수그려진 쌀나무는 그것이 병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직은 뻗뻗하고 새파란 5월의 버이고 싶은 심정으로 이 계절을 맞는다.

우리는 간혹 자신의 개인적 안락과 미래까지도 포기하면서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 앞에서 순간 순간 부끄러움과 왜소해짐을 느낄 때가 있다.

마음약한 베드로의 자화상을 생각하면서 정녕 일상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작은 꿈과 희망이 왜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대상이 되어

야 하는지, 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자.

또한 지금까지 국내의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원의 역할이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젊은 대학생 선수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판정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며 약 1년간의 심판활동에서 얻은 교훈과 문제점을 글로 옮겨 볼까 한다.

먼저 근래에 발간된 몇편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태권도 심판원으로서의 적합한 조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격과 정신적 능력에 중점을 두고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원은 태권도 경기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독특성과 기술의 성격에

“일부 소수의 깨어있는 심판원들은 타락한 정의와 주변에 널려있는 값싼 권력과 금욕으로부터 심판의 윤리관과 권위를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태권도인으로서 강한 정의감과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인격적 자세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경기인으로서 순수한 스포츠적 열정과 경기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책임감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또한 태권도 경기 속에서 심판원은 경기운영자 또는 규칙 집행자란 일차적 임무 이외에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심판원이 된다면 선수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심판의 조건으로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판단력, 정신의 집중력과 주의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다수의 심판원들은 간혹 외부적 조건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한 자체를 제약당하는 피동적인 판정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경기장 환경에 대하여 나역시 인간이기에 수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

면 비웃으며 외면해야 할 것인가에 매달려 해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뻘쭙까지 깊숙히 고독한 더해 갔었다.

우리가 차지한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무분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몸을 덮은 열등의식의 부스러움을 자만의 베일로 가릴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를 고백하며 진정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느낀 몇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향토성을 띤 지역 선, 후배 관계.

둘째, 출신학교 선, 후배, 동문 관계.

셋째,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관 개념의 갈등

그래도 이러한 문제는 심판의 판정의식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힘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에서 오는 횡포에 굶음과 정의, 패기는 사라지고 자신을 감싸줄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데로 흘러가는 순응적 심판원이 있다는 것이다.

선택하기 보다는 선택되어져야 하는 이 모순 속에서 지금의 심판원들은 얼마나 순응적 인간으로 길들여져야 하는가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현재 태권도 경기에서 만연되어 있는 비합리성의 일반화 현상이 심판원들의 의식 속에 아주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가장 비굴하게 만드는 금품 주고 받기가 아직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깨어있는 심판원들은 타락한 정의와 주변에 너무도 잡다히 널려있는 값싼 권력과 금욕의 잔해로부터 심판의 윤리관과 권위를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권력과 칼을 쥔 사람들에게 의해서 곧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고독한 진리는 꼭 승리 한다는 진실을 흐르는 강물이 얼기전에 멈춰세워 맹세하고 싶다. *

태권도를 통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기대하며

박 익 규 /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 4단

태권도는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세계 각국에 국위선양은 물론 외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후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통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에 영향을 받은 동구권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북방 및 외교정책에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후로 분위기 조성 등 스포츠 외교에 태권도가 매우 큰 몫을 하리라 본다.

앞으로 태권도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종합무도인 만큼 태권도를 통해 남·북한 이념을 초월해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큰 것은 작은 것에 영향을 준다는 국제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정치·경제·군사 문화적인 것까지도 강대국의 종속이 된다. 그러나 태권도

만큼은 유일하게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태권도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하다.

‘운동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돼’

사람들은 흔히 ‘운동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돼’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태권도는 행위에 있어서 수신(자기완성)을 중요시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치자의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수신을 근본으로 삼은 것을 볼 때, 태권도가 생활윤리와 정치형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신하는데 있어서 전통무도인 태권도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태권도를 통한 수신자는 본래 자신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킬 줄 알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정신철학과 행동철학이(태권도 사상) 바탕이 되어 완전한 마음이 정립되었을 때 순수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마음이 되며,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도에 어긋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게 되며, 정치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적어지고 신뢰가 형성되어 윤택해지며, 아울러 페어 플레이(fair play) 정신이 존재하기에 더욱 건전하고 아름다우며 멋진 정치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무궁화 꽃은 무궁화 꽃 다워야 가장 아름답고 향기가 좋다. 그리고 여러 꽃들과 같이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더욱 아름답다. 정치·사회 또한 각계각층이 구성원인 만큼 자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스포츠와 정치는 불가분의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순수성을 잃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인은 본래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일탈된 정치권력의 시녀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만 태권도인의 태권도 사상에 입각한 제도권내의 건전한 정치참여와 역할은 바람직스러우며, 태권도학의 사상적 진리를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이룬다고 할 때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며 멋있어 진다고 생각한다. *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



김 석 련

서울 대성중·고등학교
체육교사

흔히 요통이란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말하며 성인의 경우 70~80%가 요통 증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요추 구조에 가해지는 과도한 역학적 부담에 기인한다. 역학적 부담의 기전은 외상 혹은 그릇된 자세나 직업에 의한 계속적인 역학적 부하이며 척추에 일어나는 병변은 대다수의 경우 지지하는 기타 인대조직의 신전이나 파열로 인한 것이다.

얼마 전 중앙 일보에 연세 대학교 의과 대학의 한 교수가 요통 환자의 70% 이상이 사무직 근로자와 가정 주부로서 이는 나쁜 자세와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이 되어 요통이 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알고 행함으로써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척추에 미치는 무리한 부하를 줄일 수 있어 요통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치료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본 필자는 외국의 의학 전문지와 의학 서적을 토대로 하여 항상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와 운동 몇 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I.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세

1)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바로 서기 자세는 가슴을 자연스럽게 펴고 직립 자세로 편히 선 다음 머리 끝으로 천정을 닿으려는 것처럼 하여 바로 선다. 이 때 시선은 정면으로 한다.

걸어갈 때는 양 어깨를 똑바로 하여 바로 선 다음에 두 발을 수평(11자)으로 하고 양 발가락을 쭉 뻗어서 가슴을 자연스럽게 펴서 경사면을 오를 때처럼 골반의 앞 부분을 높이며 일직선으로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이다. 이 때 굽이 높은 구두는 허리에 이롭지 않으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바르게 선 자세〉



〈나쁘게 선 자세〉



〈바르게 걷는 자세〉



〈나쁘게 걷는 자세〉

2)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는 가능하면 척추를 받쳐 주는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이 좋으며 등이 닿는 부분의 오목한 공간을 가능하면 줄여서 앉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승용차의 좌석에 앉을 때는 등을 의자 뒤에 곧게 세우고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해서 앉는 것이 좋으며 의자의 형태에 따라 조정해서 앉아야 한다.



〈바른 자세〉



〈나쁜 자세〉

3) 물건을 들 때

가능하면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아서 등을 사용하지 말고 허벅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천천히 물건 등을 들어 올리되 흉곽선, 즉 가슴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등을 구부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등 근육을 긴장시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이다.



〈바른 자세〉



〈나쁜 자세〉



4) 잠을 잘 때

가능하면 딱딱한 매트리스나 3/4인치 베니어판을 깔 침대 또는 정형외과용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잠을 자는 것이 좋으며 온돌일 경우에는 얇은 담요 같은 것을 깔고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듯하게 누워 베개나 담요같은 것을 접어서 무릎 아래에 깔고 자는 것이 허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베개는 얇은 것을 사용하되 머리 밑에 베는 것이 좋으며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 때는 무릎과 엉덩이를 굽혀서 자는 자세가 허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바른 자세〉



〈나쁜 자세〉



〈바른 자세〉



〈나쁜 자세〉

5) 차를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석에 베니어판을 깔거나 특별히 딱딱하게 받쳐 주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앉을 때는 무릎을 굽히고 핸들 쪽으로 바깥 다가가 앉아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오랜 여행시에는 한두 시간마다 휴식을 주며 휴식시에는 가벼운 워킹으로 긴장을 풀고 근육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다.



〈바른 자세〉



〈나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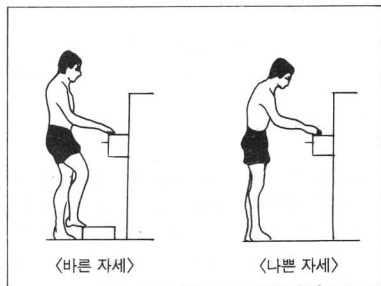
6) 일을 할 때

오래 서서 일을 할 때는 한쪽 발을 15cm 정도 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하게 되면 허

리뼈가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어 척추에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일이 계속될 경우에는 엉덩이나 무릎을 가꿈 등근 의자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오래서서 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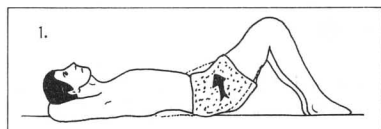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할 때는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휴식시에는 일어나서 가벼운 워킹과 함께 부드럽고 유연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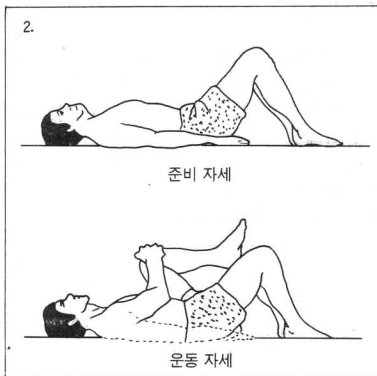
II.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

1)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여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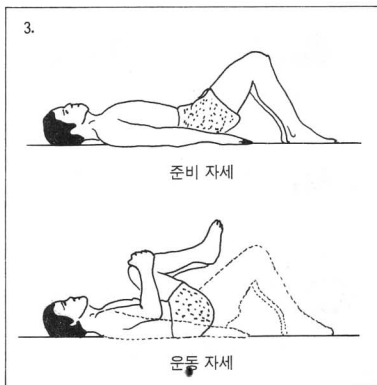
마루 바닥에 등을 밀착시키고 배와 엉덩이 한쪽 근육을 수축시킨다. 이 때 골반의 아래쪽 끝을 회전시켜 주고 마루 바닥에 등을 납작하게 밀착하게 해준 다음 5초 동안 동작을 취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다음 바로 하면서 호흡은 내쉰다. 이것을 반복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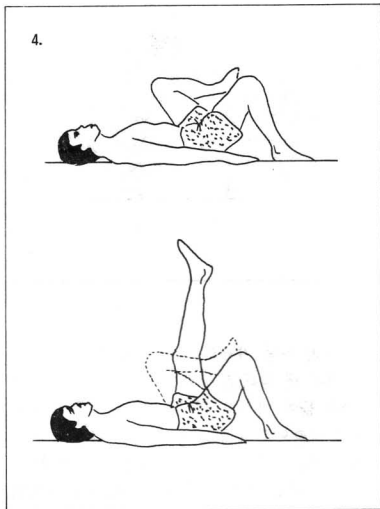
2) 1번과 같은 자세로 누워 두 손으로 한쪽 무릎을 잡고 가능한 가슴 가까이로 천천히 잡아당긴 다음 제 자리에 놓고 발을 바꿔가며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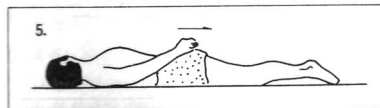
3) 전과 동일한 자세로 누워 두 손으로 양 무릎을 잡고 가슴 가까이 천천히 잡아당긴 후 약 3초 동안 멈추었다가 본래의 준비 자세로 돌아간다. 이 동작을 반복한다.



4) 같은 자세로 손바닥을 허리로부터 45°각도의 위치에 놓고 한쪽 무릎을 구부린 자세 그대로 가슴 쪽으로 잡아 당긴 다음 발끝을 가능한 천천히 위로 곧게 뻗은 후 역순으로 본래의 자세로 되돌아 가는 운동을 두 발을 바꿔가며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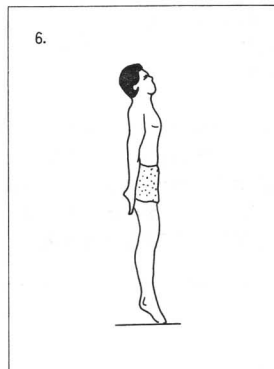


5)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누워 손을 등 뒤로 오게 해서 서로 맞잡고 다리쪽을 향해 힘껏 밀어 줌으로써 어깨를 등뼈와 발 끝 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 때 어깨 뼈를 함께 죄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깊은 숨을 2초간 들이킨 다음 바로 하고 호흡을 내린다. 이 운동을 반복한다.



6) 직립 자세로 똑바로 서서 숨을 들이킨 다음 양손을 허리뒤로 하여 한 손으로 다른 한손의 엄지 손가락을 잡고 아래쪽으로 바닥을 향해 힘껏 뻗는다. 이 때 발 뒷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서면서 아래쪽을 향해 힘껏 잡아 당기는 동안 시선은 천정을 향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고 바로 자세로 오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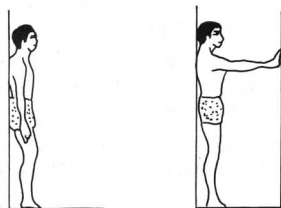
직장인일 경우 낮에 근무하는 동안 잠깐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 간격으로 10번정도 되풀이 하라. 한 잔의 커피와 한 개피의 담배로 인한 휴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운동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의 증진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 작업 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7) 등을 벽에 기대고 서서 발은 벽으로부터 10c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난 다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쉰 다음 벽에 등을 조금 기대고 배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수축시킨다. 이 때 무릎을 약간 굽힌 다음 반대편 벽에 두 손을 밀어서 벽쪽에 목의 윗부분을 밀착시키면서 두 무릎을 곧게 펴는 동작을 2초간 한 뒤에 조금 쉬었다 반복한다.

이 운동은 골반의 아래쪽 끝을 회전하게 하여 허리의 피로를 풀어 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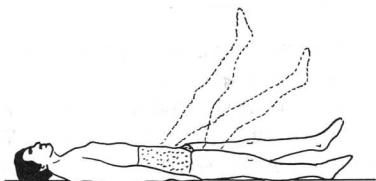
준비 자세

운동 자세

※ 다음의 8, 9, 10번의 운동은 허리에 통증이 없을 때 행하는 것이 좋으며 1~7번까지의 운동을 2~3주 정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 다리를 곧게 펴고 등을 바닥에 댄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 양 손을 옆구리 옆 쪽 바닥에 댄 다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린 뒤 한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 그대로 들어 올리고 난 다음 천천히 내리는 것을 각각 5회씩 반복한다.

8.



9) 의자나 탁자를 잡고 쪼그려 앉은 뒤 머리를 앞으로 하여 발 뒷꿈치를 들고 두세 번 뛰는 듯하게 반동을 주고 난 다음 조금 쉬었다 반복한다.

9.



10) 1번 운동 자세와 같이 무릎을 굽히고 등을 바닥에 댄 상태로 누워 깊은 심호흡을 한 다음 숨을 들이 마시고 내 쉬면서 윗몸을 천천히 일으켜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당긴 다음 본래의 준비상태로 돌아 간다. 이 운동을 반복하며 발목을 잡아 주는 보조자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10.



향후 태권도지 편집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계간 태권도」는 1971년 4월에 태권도인의 대화의 광장으로 태권도인구의 저변확대, 태권도 이론의 체계화, 기술의 과학화, 경기인의 자질향상, 본회 사업의 대외홍보 등을 실현한다는 의지로 창간된 이래 지난 89년 9월에 제70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계간 태권도지를 검증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태권도지 발간을 위한 비판의 자료를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7호 대한태권도협회
홍보과

▲마감일자 : 1990년 2월 20일

▲보내주신분에 대해서는 다음호(제72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

1. 귀하의 연령:
2. 귀하의(段) :
3. 귀하의 직업:
4. 태권도지를 매호 구독하고 있습니까?
 - ① 빠짐없이 구독한다
 - ② 간혹 못 볼 때도 있다
 - ③ 주변에 있어야 본다
5. 태권도지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 ① 정기구독하고 있다.
 - ② 협회에서 필요할 때 사서 본다.
 - ③ 승단심사후 협회에서 받아본다.
 - ④ 기타
6. 게재된 기사를 어느 정도 읽습니까?
 - ① 빠짐없이 다 읽는다
 - ② 관심있는 기사만 골라 읽는다
 - ③ 대충 제목만 훑어본다
 - ④ 거의 읽지 않는다
7. 기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대체로 어렵다
 - ② 적당하다
 - ③ 쉬운편이다
8. 태권도지의 지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적당하다
 - ②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 ③ 줄었으면 좋겠다
9. 발간 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지금처럼 3개월에 1번이 적당하다
 - ② 2개월에 1번이 좋다
 - ③ 1개월에 1번이 좋다

10. 태권도지의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 도움이 된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일선 태권도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반영되고 있다
- ② 간혹 반영되고 있다
- ③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12. 현재 태권도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이 된다
- ② 더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 ③ 전혀 도움이 안된다

13. 지방 태권도계 소식의 지면 할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 ② 지금이 적당하다
- ③ 줄었으면 좋겠다

14. 현재의 오락물(소설, 만화, 동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 ② 적당하다
- ③ 줄이는게 좋겠다

15. 많이 읽고 재미있는 난을 순서대로 2개만 적어 주십시오

- ①
- ②

16. 없었으면 하는 난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17.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18. 교양을 위해 태권도의적인 글을 게재하는 것은?

- ① 매 호 게재했으면 좋겠다
- ② 가끔 게재했으면 좋겠다
- ③ 게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 지면의 할애가 가장 많아야 할 내용부터 번
호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화보
- () 특집 및 기획기사
- () 경기기사
- () 태권도계 소식(국내·외) 및 정보
- () 칼럼(태권도계 내부 및 외부인사)
- () 현장답방
- () 논문
- () 오락(동화, 소설, 만화 기타)

20. 향후 태권도지의 기능이 어디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록지로서의 기능
- ② 정보지로서의 기능
- ③ 교양지로서의 기능
- ④ 신속한 뉴스지로서의 기능

21. 신설되었으면 하는 난이 있으면 적어 주
십시오.

22. 기타 태권도지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
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의견란:

알립니다

1971년 4월에 창간된 '계간 태권도'지는 300만 회원 독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 고희(古稀)라 할 수 있는 지령 70호를 넘었습니다.

1990년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태권도지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도를 높이고 궁금점을 풀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1. 독자 토론 광장

우리 주변에는 누구나 다 알면서도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꺼리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므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소재도 많습니다.

본 지는 매 호마다 우리 주변의 조그만 소재를 갖고 태권도 식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평소 알고 싶었던 이야기, 되새기고 싶은 에피소드 등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환영합니다.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72호 주제 : '사범과 관장'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는 '사범'으로 불리기를 싫어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스승사(師)字를 사양하고 체육관의 관장(館長)이길

고집하는 현재의 태권도계에서 과연 사범과 관장의 진정한 개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원고 마감 : 1990년 2월 15일한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4매 (사진 첨부)

▲보내실 곳 : 우 134-678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 회관 607호 대한태권도
협회 홍보과

2. 태권도 문답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태권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협회, 국기원, 세계연맹 등의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연결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국제경기연맹연합회 (KAISF) 리셉션에서 Surac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김운용회장.

회장 동정



◀ 서울올림픽개최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김운용회장



▲무교동 체육회관은 이제 정든
옛교향집이 되어...

대한태권도협회 오륜동 시대 개막

▶ 본회사무실은 올림픽회관 607호에
자리잡고 있다.



▲ 본회 사무실이 1966년 7월부터 23년 4개월간 몸담았던 무교동 시대를 마감하고 잠실의 올림픽회관으로 이사, 대망의 1990
년대를 신청사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9TH GENERAL ASSEMBLY MEETING

—7th October 1989—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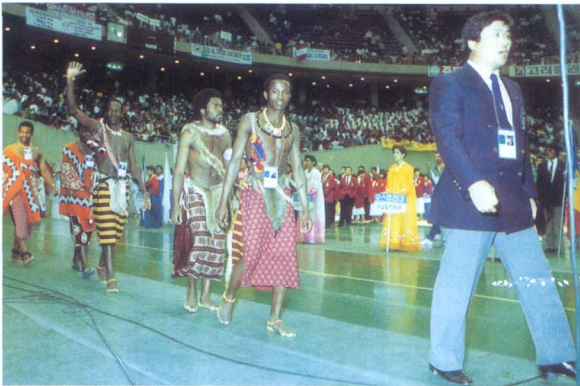
◀ 10월 7일 웨라톤워커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서 김윤용총재가 재선되었다.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개회식 공개행사에서 인천시립무용단이 화려하고 웅장한 부채춤을 선보여 외국선수단 및 많은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전통고전의상을 입고 개회식에 입장한 스와질랜드 선수단이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역대 세계대회 챔피언들이 이번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나와 대회를 빛내주었다.





▲ 10월 1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남자 58개국 310명, 여자 34개국 13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개회식이 펼쳐졌다.



◀ 한용석 단장을 비롯한 우리선수단이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며 입장하고 있다.



▲ 이번대회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어 남자 금7, 은 1개와 여자 금5, 동2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종주국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 하늘높이 솟구치는 기쁨으로 이철주코치를 행가래치는 선수단.



▲ 플라이급에서 세계를 제패한 원선진선수는 중학 3학년생 (수원수성여중). 최연소자 세계챔피언으로 주목의 대상이었다.

제 70 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 15개 시도에서 총 393명이 출전한 가운데 안양중앙국민학교체육관에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이번대회에서 서울팀이 우승, 경기도가 준우승 전남이 3위를 차지했다.



제 12 회 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



▶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된 이번대회에서 그동안 준우승에 머물던 성신여대가 처음으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체급별 최강자를 선발한 이번대회에서 박선영
선수가 여자 최우수선수상을, 권태호선수가
남자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89년도 전국남녀 우수선수선발대회



▲ 체급별 1위를 차지한 남자부선수들은 1990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출전하게 됐다.



▲ 제 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입상자와 유공자들이 지난 9월 8일 올림픽 회관에서 거행된 포상수여식에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태권도 소식



▲ 법무부 주최로 10월 27일 교정연수부연구관에서 열린 제 25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에는 총 68개팀에서 352명이 참가해 태권도, 유도, 검도 단체시합을 벌였다.



▲ 경찰의날 기념행사로 매년 실시되는 경찰무도대회가 10월 20일 부평경찰학교 체육관에서 18개 시도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서울시경팀은 1984년도부터 계속 우승, 6연패의 영광을 차지했다.